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구원해주신 그 은혜에 감 사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아버들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 4절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www.chpress.net

주후 2018년 7월 28일 (토) 제 1691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부모-교회’ 함께하는 신앙교육 필요하다!

바나리서치, Z세대 기독교교육 대안 시너지 효과 밝혀

Z세대(1999년-2015년 사이 출생)의 특징은 월드와이드웹, 메신저, 문자, MP3, 휴대전화, 유튜브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와 함께 성장한 역사상 가장 ‘연결된’ 세대라는 점이다. 이들이 태어난 세계는 포스트모더니즘, 다문화주의, 세계화라는 새로운 물결이 불어 닥친 이후였다. 이들은 온라인상에서 정보를 찾아내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생각을 교류한다. 전 세대와 달리 이들의 부모는 대부분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거나 집에 머물면서 아이들을 돌보고, 자녀들의 과외활동을 돕는다. 그리고 세계적 불황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는 불안을 체득하면서 성장하고 있다. 이렇듯 이들의 삶은 이전 세대와 뚜렷이 구별된다. 신앙적 측면에서도 이

전 세대와 다른 새로운 위기와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Z세대를 위한 교회교육을 준비할 것인가?

‘바나리서치’는 크리스천 부모들이야말로 바로 이들에게 온전한 신앙을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최근 설문 조사 결과를 통해 밝혔다(Parents and Pastors: Partners in Gen Z Discipleship). 한마디로, 교회 교육만 가지고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와 유스 담당 목회자가 협력해서 Z세대에게 다가갈 때 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해준다.

이번 설문 조사는 2차에 걸쳐 진행됐다. 먼저 지난 2016년 11월 4일부터 16일까지 13-18세 사이 십대들 1,490명, 성인 1,517명 그리고 2017년 7월 7일부터 18일까지 507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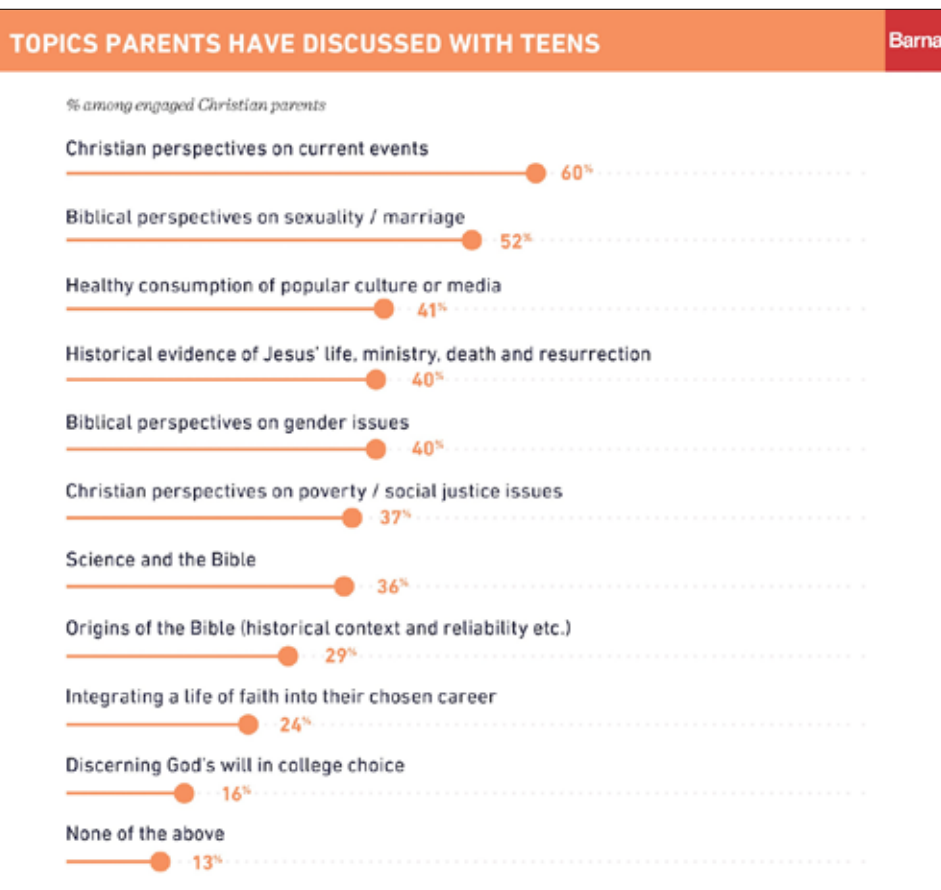
크리스천 부모들은 한결같이 자녀들이 온전한 신앙을 가질 것을 갈망하고 있었다. 정기적으로 교회에 다니고, 복음적 신앙을 믿는다고 밝힌 부모들 중 대부분은 자녀들이 성인되는 성장과정에서 신앙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응답했다. 따라서 “크리스천 신앙을 설명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성장”, “주일에 참석” 등이 바로 성인으로서 가져야할 신앙의 전반적인 목적이라고 부모들은 이해하고 있다.

그렇다면 누가 이들의 신앙 발달에 우선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가? 이번 설문에 참가한 크리스천 부모들 중 59%는 부모들이 1차적 책임을 지고 있고, 36%는 부모들과 교회학교 목회자나 선생님들이 진다고 말했다.

신앙 형성이나 발달의 방법으로는 △주일에 교회 같이 가기(89%) △같이 기도하기(59%) △같이 성경을 읽고 토론하기(45%) 그리고 △선교나 사역 같이 하기(44%) 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Z세대라 할지라도, 크리스천 십대들은 부모와 함께 대화하는 것을 선호한다. 무려 79%나 “나는 의문이나 갈등 그리고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부모들에게 솔직하게 물어보고 도움을 받는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또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대부분



의 부모들은 아이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나 쟁점에 대한 크리스천적 관점이 무엇이며, 성이나 결혼에 대한 성경적 정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한다고 말한다.

질문에 미치지 않지만 그래도 Z세대

에 일상인 건강한 미디어 문화 받아들이기와 과학과 성경과의 관계에 대해서 묻고 있다.

(3면으로 계속)

‘부모 생이별’ 정신적 외상으로 이어져

뉴스위크, 존스홉킨스 폴 스피겔 박사와 밀입국자 아동격리 피해 일문일답

지난 4월과 5월 미국 연방정부 관리들은 남쪽 국경을 넘어 밀입국하다가 체포된 불법이민 가족의 어린이 약 2000명을 부모와 격리시켰다. 그 어린이들은 텍사스 주의 수용소에서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될지 기다렸다. 이와 관련해 제기되는 우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와의 분리가 그런 어린이들에게 안겨주는 정신적 외상이다.

거의 모든 언론들이, 지구촌 전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밀입국자 아동 격리라는 반 이민정책을 집중 보도했다. 한마디로, 불법 이민자 아동들이 받을 심리적, 정서적, 정신적 트라우마를 염려한 것이다.

오랫동안 인도주의 활동을 해온 폴 스피겔(Paul Spigel) 박사는 현재 존스홉킨스대학 블룸버그 공중보건대학원 산하 인도주의 건강센터 소장을 맡아 전 세계의 수많은 위기에서 구호와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뉴스위크는 현재 미국 정부가 밀입국자의 자녀와 부모를 강제 분리해 임시 수용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그런 분리가 잠시라고 해도 어린이에게 어떤 영향 미칠 수 있는지 스피겔 박사의 견해를 들어봤다(Immigrant Children Separated At Border Could Suffer Depression, Disease And Even Earlier Death, Doctor Says).

미국 내에서는 성인이 범죄 혐의로 기소돼 구금될 때 그들과 함께 있는 자녀들은 동반 소아로 분류해 따로 격리한다.

미 국토안보부(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통계에 따르면, 4월 19일부터 5월 31일 사이 1,995명의 어린이가 1,940명의 성인과 격리됐다. 국토안보부는 어린이들의 구체적인 나이는 밝히지 않았다. 부모로부터 격리된 아이들은 보건복지부가 사건의 요지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양육 시설이나 구류 시설에 구금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밀입국에 강경하게 대처하면서 밀입국자들이 대거 처벌돼 아이들만 홀로 남겨지게 된 것이다. 이 같이 부모와 아이를 격리하는 정책에 대해 미국 전역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폴 스피겔 박사의 일문일답을 통해 부모와의 격리라는 강경한 반 이민정책이 아이들에게 어떠한 피해를 줄 수 있는지 들어보자.

(3면으로 계속)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ATK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www.wmu.edu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청소년서적 / 영성 / 생애 / 역사 / 기쁜 / 교재 / 영성 / 영성 / 영성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40-21 159th St. #118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201)346-0030
5 Elmwood Rd. Tenaflex Park, NJ 07620

문의 347-952-5442 1-800-404-1171
E-mail: jgospelmail@hotmail.com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Forever 우표 특별할인 판매

그동안 49센트에 판매되던 Forever 우표 (행정 가격변동 없음)가 곧 60센트로 오를 예정입니다. 특별가 38센트로 한정 판매 합니다.

www.laboookusa.com / cbc0191@hotmail.com
대표 강병찬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시론 2면
민경엽 목사

7면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손상용 목사

www.rptseast.org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생모집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2018년 가을 학기 주.야간 모집학과

신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 제 출 서 류 ◆

- 1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통
- 2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통
- 3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통
- 4 신앙고백서 1부
- 5 명함판 사진(2"×2") 2매
- 6 입학 전형료 30불

◆ 원서교부 및 접수 ◆

- 1 원 서 교부처 : 신학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 2 원서접수마감 : 2018년 8월 31일(금) 오후6시
- 3 입 학 시 험 : 2018년 9월 1일(토) 오전11시, 면접 오후 2시
- 4 개 강 부흥회 : 2018년 9월 4일(화) - 9월 6일(목) 저녁 8시
- 5 문 의 처 : Admission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김성국 박사

“주님께서는 내일의 소망을 주십니다!”

CT, 갈렘 칼텐바흐 목사의 친구 죽음에서 재확인한 신앙 간증 게재

갈렘 칼텐바흐(Caleb Kaltenbach) 목사는 캘리포니아에서 동성애자를 자녀로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며, 그 경험들을 책으로 나누고 있다. 2016년, 윌드지는 그가 저술한 책들(Messy Grace: How a Pastor with Gay Parents Learned to Love Others Without Sacrificing Conviction, WaterBrook, God of Tomorrow: How to Overcome the Fears of Today and Renew Your Hope for the Future, WaterBrook)을 올해의 크리스천 도서로 선정했다.

따라서 그는 뉴욕타임스나 CNN 그리고 CT(크리스천티투데이)를 비롯한 크리스천 미디어에 정기적으로 기고하고 있다. 칼텐바흐 목사는 갑작스런 친구의 사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일의 소망이 있는 까닭을 아주 진솔하게 전해준다(The Day I Fervently Asked Jesus to Come Back: How a friend's tragic death gave me a new perspective on hope).

싱글 시절, 교회 사역을 위해 남부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한 적이 있다. 이 지역에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교회에서 만난 몇몇 사람과 친구가 됐고 그 중 셋이 집을 빌려 같이 살았다. 친구들과의 자취 생활은 즐거웠다.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대화 중에는 실없는 농담도 많았다. 두어 해 후에 같이 살던 한 친구가 결혼해서 우리 집에서 15분 정도 떨어진 곳으로 이사했다. 뜻밖이었다. 그는 거의 모든 면에서 나와 정반대였다. 훨씬 한 키킬로 이상 빠진 외모, 풍성한 머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 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고전15:52-54). 그 마지막 날에 친구가 하나님께 주신 새 몸을 입고 나타날 모습을 상상하니 소망이 샘솟았다. 내게는 여전히 그 소망이 있다. 능력이 많으신 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고전15:52-54)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에 대한 확신 새롭게

리술, 다부진 체형, 적당히 그을린 피부. 게다가 그는 마약단속국 요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의 결혼 이후, 나머지 한 친구와 나는 자연스레 각자의 길을 갔다.

그로부터 1년쯤 지났을까. 10월 말을 향하던 어느 날 저녁, 아무도 원치 않을 전화를 한 통 받았다. 결혼한 친구가 오토바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다. 그날 저녁, 한 주먹가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친구는 불법 유턴을 하던 차량에 부딪혔다. 친구의 오토바이와 차량이 측면으로 충돌하면서 친구는 오토바이에서 내동댕이쳐져 영원으로 날아가 버렸다. 끔찍한 사고였다.

전화를 받고 30분쯤 후에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 이미 현장은 대부분 정리됐지만, 친구의 오토바이는 아직도 길 한복판에 누워 있었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망가진 상태였다.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속속 도착했다. 잠시 후에 우리는 걸어서 근처에 있는 그 친구의 집으로 갔다. 남편을 잃은 젊은 신부는 눈이 붓도록 평평 울고 있었다. 집은 그가 금방이라도 돌아올 것만 같은 인상을 풍기고 있었다. 그가 마시던 음료가 싱크대에, 내일 입을 옷이 침대에 놓

여 있었다. 텔레비전이 켜져 있고 그가 읽던 책도 의자에 그대로 있었다. 절반쯤은 그가 문을 열고 들어오기를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것이었다.

다른 열다섯 명과 함께 그 집에 세 시간 정도 앉아 있었다. 입을 여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서로 안아주고 흐느끼는 이들은 많았지만, 대화는 오가지 않았다. 거기 모인 사람은 모두 크리스천이었으므로 우리는 함께 기도했다.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몰랐지만, 어쨌든 기도했다.

두어 주 후에 장례식이 있었다. 그날이 마치 어제처럼 기억이 생생하다. 수많은 장례식에 참석해보았지만, 이 친구의 장례식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순서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자리를 지킨 경우는 처음 보았다. 아무도 자리를 뜨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다. 우리가 자리를 뜨면,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장지를 떠나기 전, 나는 할리우드의 복잡한 고속도로와 버뱅크 너머 언덕을 응시했다. 언덕 너머로 구름이 모여들더니 언덕 꼭대기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내가 묘사한 내용이

독자들의 마음에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겠으나, 아주 극적인 장면은 이미 감정적이 된 내 마음에 또 다른 울림을 주었다. 나는 예수님이 어서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하지만 내가 바라는 때와 그분의 때는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날 소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었다. 저 멀리 언덕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정의와 질서와 구속을 주러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장엄하게 나타날 것을 떠올렸다. 눈을 감고, 예수님의 재림을 묘사한 바울의 말씀을 생각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박할 사이에, 홀연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같은 일을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음을 경험하는 만큼이나 죽음은 최후에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어 살아가려는 우리의 의지와 신뢰를 받으시기에 하나님이 전혀 손색이 없으시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사회 환경과 우리 삶의 모순을 초월하여 확장된다. 그분만이 그런 소망을 주실 능력이 있으시다.

성경은 언젠가 더 큰 내일이 도래해 우리 모두가 그 가운데서 살게 되리라고 강력하게 약속한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내일에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심긴 소망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3면으로 계속)



시론

목사답게 산다는 것



민경엽 목사 (오렌지 카운티 나침반교회)

나라마다 엘리트 계층이 있다.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며 행동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결정된다. 조선시대에는 그런 엘리트 계층을 선비라 했다. 조선이 500년이나 역사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선비들의 지력이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선비가 선비답게 살았기 때문에 조선이 조선다울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선비가 자신들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사색당파에 휘둘러 사분오열되고 계파간의 이익만을 쫓는 데 급급했기에 조선의 말로가 비참했다고도 할 수 있다. 조선시대 선비들에게는 세 가지 덕목이 있었다. 열공과 충절, 그리고 여유였다.

선비는 우선 학문의 조개가 깊어야 했다. 깊고 넓은 학문을 뒤야 자연의 이치와 인생의 도리를 터득해야 선비답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런가 하면 선비들은 올바른 가치를 위해 목숨을 바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임금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을 명예로 생각하였다. 자신의 신념에 어긋난 일이 있으면 누구에게도 뜻을 굽히지 않았다. 지조와 절개를 생명처럼 여겼다. 조선시대가 융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많은 선비들에게 근세 유럽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상류층의 의무) 의식에 충실한 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 그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여유를 잃지 않았다. 특히 가난한 가운데서도 여유를 중시했다. 16세기 초에 살았던 김정국이라는 선비는 자기의 호를 팔여거사(여덟 가지 여유를 즐기는 선비)라고 하였는데 자기 친구가 호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자 이렇게 대답하였다. “토란국과 보리밥을 배불리 먹어먹고, 부들자리와 따뜻한 온돌에서 잠을 넉넉하게 자고, 땅에서 솟는 맑은 샘물을 넉넉하게 마시고, 서가에 가득한 책을 넉넉하게 보고, 봄날에는 꽃을 가을에는 달빛을 넉넉하게 감상하고, 새들의 지저귀고 솔바람 소리를 넉넉하게 듣고, 눈 속에 핀 매화꽃과 서리 맞은 국화에서는 넉넉하게 향기를 맡는다는데. 한 가지 더, 이 일곱 가지를 넉넉하게 즐기기에 팔여거라고 했네.”

조선시대 나라의 정치 경제 학문의 엘리트 계층을 선비라 하였다면 지금 이 시대 영적인 엘리트는 단연 목사라고 해야 할 것이다. 목사는 성도 중의 성도요, 제자 중의 제자라 할 수 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목사 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 교회의 명운이 갈림을 느낀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목사다운 목사가 목회를 하는 교회는 수에 상관없이 교인들이 생명력이 넘친다. 교인들의 눈빛이 다르고 말이 다르다. 목사를 칭찬하는 말이 넘친다. 목사를 칭찬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이다. 하지만 영적인 엘리트인 목사가 제 역할을 못할 때 시험이 오고 교인들은 마치 못해 교회에 나가며 교회도 별 수 없다는 체념 섞인 자조론이 넘친다. 모든 것을 목사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지만 목사가 가장 큰 책임인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 한국교회와 이민교회가 정제 내지는 쇠퇴하며 가나안교인들이 줄을 잇는 것은 무엇보다 목사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

그렇다면 목사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시면서 제자의 길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 오신다면 평신도와 목사를 따로 구분하시면서 목사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지 않으실까? 그렇다면 목사는 누구보다 예수를 사랑해야 한다. 자기 목숨조차 미워하지 아니하면 목사답게 살 수 없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뒤를 따르지 않는다면 역시 목사답게 살 수 없다.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목사답게 살 수 없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잠22:1). 예수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이 목사의 명예다. 이런 목사의 명예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잠22:2). 이 말씀처럼 모든 목사의 교회가 커질 수는 없다. 대형 교회와 중소형 교회의 사명이 다르다.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교회다. 요즘은 모든 목사가 담임목사가 될 수는 없는 그런 시대다. ‘부목사’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심지어 하나님은 무임목사도 있게 하셨다. 그래서 목사가 이중직을 갖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서로 비교하지 말고 각자의 부르심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목사가 명예는 지켜야 한다.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선택해야 한다. 한국에 있는 친구 중에 교회를 개척했다가 닫은 목사가 있다. 지금은 택시기사를 하고 있다. 그는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지만 결국 현실이기에 수용했다. 그는 가난하고 이런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충실한’ 택시기사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다. 그래서 자신이 목사라는 명예를 소중히 여긴다. 목사됨을 잊지 않는다. 목사답게 손님을 대한다. 목사답게 온갖 유혹을 물리친다. 그래서 나는 그를 존경하고 좋아한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 편집국장: 유원정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 (323) 865-0009 (대 표) (323) 865-9025 (광고국) Fax: (323) 865-0056 (편집국) (323) 865-0046 (광고국)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 (718) 886-4400 (대표) (718) 886-4424 (편집국) Fax: (718) 886-0074 (대표) E-mail: nycpress@gmail.com	
<small>The Korean Christian Press (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 (every Saturday) 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small>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517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I-20 발행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세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부모-교회’ 함께하는 신앙교육 필요하다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구비시켜주는 프로그램 부재(16%) 그리고 △십대들만의 소그룹이나 성경공부 부재(14%) 등이 지적됐다.

한편 유스 담당 목회자들은 십대들의 신앙 형성과 발달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다른 아닌



(34%) 그리고 △성경이나 신앙의 근본적인 질문들을 자유롭게 물어볼 수 있는 환경 마련(23%) 등이 바로 2세대들이 교회로 오게 만들고 있었다.

그러나 교회교육 프로그램 중 일부는 약점도 가지고 있다. 즉 △앞으로 직장이나 경력을 적절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장치가 없다(34%)

부모들의 참여 부재다. 즉 “부모들은 자녀들의 영적 성숙을 최우선순위로 여기지 않는다”였다. 물론 이들이 말하는 부모들은 신앙을 가진 부모들이 아니다.

유스 목회자 중 거의 30%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십대들과 함께 성장하는 신앙을 가진 십대들의 필요와 욕구가 항상 문

제를 일으키는 갈등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신앙을 갖지 않은 십대들의 현실적인 요구나 필요에 맞춰, 신앙의 근간에 대해서는 정작 이야기할 충분한 시간이 없다는 것이 십대들을 교육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된다.

그런데 문제는 전통적 가족의 형태가 지속적으로 쇠퇴하고 있다는 점이다. 선진국의 경우 4명 중 1명의 어린이가 편부모 가정에서 자라고 있다. 이 비율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가족의 형태가 변할 때 교회는 가족 목회에 대한 이해도 바뀌어야 한다.

따라서 교회는 청소년 목회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부모의 참여를 의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신앙교육에 있어 부모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회에 신앙교육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교회에서 가르친 내용을 부모에게 보내고 부모는 그 내용을 가정에서 학습하고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자녀교육을 위한 부모교육이 교회학교의 핵심 교육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 신앙적으로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교회와 부모가 함께 담당해야 할 책임이다.

원로칼럼



박중순 목사 (충신교회 원로)

목회와 부흥회(2)

부흥회 강사, 바른 신학으로 훈련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어느 한쪽을 치우쳐도 안 되고 신학 수업의 정도가 전문하거나 낮아도 안 된다. 신학수업이 없는 평신도를 감도 없이 강사로 세우는 경우를 본다.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무면허 운전자에게 운전대를 맡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부흥회 강사는 윤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어야 한다. 야릇한 소문이 꼬리표처럼 따라 붙는 사람, 그러면서도 가장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인 양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은 부적절한 강사군에 속한다. 그래서 필자는 목회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위임받은 교회를 성장시키는 사람, 동역자들의 긍정적 평가를 받는 사람을 강사로 초빙했다.

부흥회 강사는 영성과 지성의 균형을 갖춘 사람, 신학과 실천의 융합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강사가 신학 강의를 늘어놓으면 집회는 냉기가 돌고, 성경 받아라 불 받아라 하며 기쁨을 토하지만 메시지가 텅 비면 교인들은 허탈해한다.

부흥회 강사는 교인 동원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개회 첫날 저녁 교인 동원은 담임목사의 몫이다. 기도로 준비하고 강사를 알리고 집회를 홍보해야 한다. 어느 정도 준비했느냐에 따라 첫날 저녁 회집 인원이 결정된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강사 책임이다. 첫날 저녁 메시지가 약하다든지 지루하다든지 영적 감동을 주지 못한다면 시간이 갈수록 회집 수는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부흥회 강사는 그 교회의 수준과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거기에 맞는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강사가 교인을 질책하고 호통 치고 야단치는 것은 금기사항이다. 이렇게 안 모이는 교회는 처음이라니, 왜 준비가 이 모양이냐니, 중직들 이들을 낱알이 호명하고 안 나온 사람은 지금 당장 가서 데려오라니, 전화를 걸라니, 교회 안에 앉아있는 '잘못 없는 교인'들만 주눅이 들어 기를 펴지 못하게 한다면 그 시간 말씀 전달은 이미 실패나 다름없게 된다. 마음의 문이 닫히면 말씀을 받아먹지 못한다. 야단맞고 열리는 마음의 문은 없다.

필자의 경우 강단에 서면 칭찬할 조건들을 찾아 칭찬으로 말씀 전달의 문을 연다. 안내위원들의 태도, 복장, 교회 분위기, 대표기도, 찬양대 찬양, 담임목사의 묵회 소문 등 얼마든지 칭찬

거리가 있기 마련이다. 칭찬하면 분위기가 바뀌고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의 문이 열린다.

부흥회 4대 원칙

필자가 평생 동안 정하고 지킨 부흥회 4대 원칙이 있다. 어느 교회 부흥회 강사로 초빙 받았든지 이 원칙은 지키려고 노력했다.

1)하나님께 영광을!

부흥회 강사뿐이겠는가? 좋은 주인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개중에는 자신의 영광과 영화를 위해 절묘하게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단들은 100% 하나님과 성경을 악용한다. 사이비들 역시 그 정도가 높다. 자기교사와 자랑으로 장시간을 할애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기 교회 자랑, 집 사준 얘기, 자동차 사준 얘기, 양복 사준 얘기, 세계를 누비고 다닌 얘기 등 도대체 그런 것들이 부흥회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부흥회 대상은 사람이다. 그러나 엄위하신 하나님 면전에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높이고 십자가를 전하고 자신은 극히 작은 자로 낮춰야 한다. 솔직히 이런 잘못된은 대형교회 목사나 부흥회로 이력이 두꺼워진 부흥사들이 범하기 쉬운 잘못이다. 교회 크다고 목사도 큰가? 그건 아니다. 교회 작다고 목사도 작은가? 그것도 아니다. 교회 크기나 부흥사 경력은 표피로 구분 가능하다. 그러나 참과 거짓, 진실과 위선, 바로 됨과 그릇됨은 겉모양새로 판별하는 것이 어렵다.

목회자나 부흥사의 경우 영적 숨 고르기의 균형이 필요하다. 설교, 부흥회 인도, 가르치는 것 모두 지출 항목에 속한다. 지출만 일삼다 보면 영성과 지성, 자기관리에 위기가 온다. 엘리야처럼 소진과 탈진에 빠지게 된다. 상업용으로 말하면 자본금(밀전)이 바닥나게 된다. 부흥사의 경우 설교를 듣는 대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내용의 설교를 반복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다. 그런 현상을 피하려면 자신의 영성 관리를 위한 기도와 경건생활, 중단 없는 연구, 자기개발을 위한 정진, 새로운 설교 구상과 준비 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iamcspark@hanmail.net

‘부모 생이별’ 정신적 외상으로 이어져

-아이들을 부모와 신속히 합치게 하면 그런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

아이들이 어떤 처우를 받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물론 분리 기간을 최소화하면 더 낫지만 이미 가해진 피해를 되돌릴 순 없다.

-이런 상황을 세계적인 맥락에서 파악한다면?

내가 아는 한 난민 가족과 어린이를 격리하는 유일한 나라가 미국이다. 물론 라이베리아의 경우와는 다르다. 그곳에선 어린이가 소년병이 되고 마약과 살인 등의 끔찍한 행동을 하도록 강요받는다. 이처럼 세계 여러 곳에서 어린이에게 더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도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어린이에게 정신적 외상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고 있다.

발육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독성 스트레스는 뇌를 지속적인 '투쟁이나 도피'의 상황에 처하게 한다. 즉각적인 위험에 대처하는 우리 뇌의 중요한 반응이지만 몇 주 동안 하루 24시간 그런 상태에 있으면 과부하가 걸린다.

-그런 변화가 어린이에게 어떤 문제로 나타나는가?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에게 문제가 더 심해질 수 있다. 일부는 약물 남용과 우울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에 더 취약해진다. 정신건강 문제에 유전적으로 취약한 어린이에게 이런 사건이 증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 ACE 연구에 따르면 정신적 외상을 반복 경험하는 어린이들 사이에서 당뇨와 심장병, 심지어 조기 사망이 증가했다.

-그런 장기적인 부작용을 막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은 없는가?

당연하지만 애초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나 만약 어린이가 부모와 분리된다면 아주 편안한 분위기에 서 지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모나 보호자와 대화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연방 보건 당국이 개입할 수 있는가?

미국 보건복지부가 이런 격리의 피해를 다뤄야 할 것이다. 보

건복지부 산하의 난민정착사무소(ORR)는 이미 가정이나 위탁 시설을 찾아야 하는 미성년자 약 1만 명을 보호하고 있다. 이제 그들은 이번 격리된 어린이 2000명까지 맡아야 한다. 미국 소아과학회(AAP)는 이런 격리가 어린이 학대와 유사하다고 지적한다.

한 가지만 묻고 싶다. 당신은 이 사실을 믿는가? 당신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구원 계획을 갖고 계시며, 우리를 더 나은 내일로 인도하고 계신다고 정말로 확신하는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 끔찍한 일들이 벌어져도 하

(1면에서 계속)

-그런 격리가 정신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증거가 있는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카이저 퍼머넌트 연구소가 1995-1997년 실시한 대규모 조사인 '부정적인 어린 시절 경험(ACE)' 연구가 이와 관련한 데이터를 충분히 제공한다. 그 연구에 따르면 정신적 외상을 가져오는 부모의 이혼이나 부모로부터 격리, 위탁가정 전입, 성적·신체적 학대 같은 사건은 어린이에게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친다. 게다가 그런 영향은 소멸되지 않고 계속 축적된다.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정신적 외상은 장기적으로 어린이의 뇌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린이의 뇌는 완전히

“주님께서는 내일의 소망을 주십니다!”

한 가지만 묻고 싶다. 당신은 이 사실을 믿는가? 당신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구원 계획을 갖고 계시며, 우리를 더 나은 내일로 인도하고 계신다고 정말로 확신하는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 끔찍한 일들이 벌어져도 하

(16면으로 계속)

(2면에서 계속)

그러나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지든, 좋은 소식이 있든 끔찍한 사건이 있든, 우리는 그 시간을 헤쳐 나갈 수 있다.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그 속으로 걸어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내일을 창조하고 예비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주최

제4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4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 방법: 추천도서 5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 또는 A4 사이즈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 마감은 2018년 10월 31일 오후 5시(미 서부시간 기준)
 -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 시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5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1,000, \$5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주어집니다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천 도서**
- 은혜받는 습관: 데이비드 마티스/영명의말씀사
 - 아니 또 부르고 싶은 어머니: 한국도서출판/류태영 외 8명
 -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 한홍/규장
 - 살피심: 김양재/두란노
 - 페이버: 하형목/청림

- 후원**
- 기독교서점협회(회장 전인철 목사)
-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duranno.us
 - 말씀사 714-530-2211 www.lifebook.co.kr
 - 베델서적 949-854-9191 bethelbook@hotmail.com
 - 조이서적 213-380-8793 www.joyla.com

주최: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회장 임승쾌 장로)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목장일기



김재열 목사 (뉴욕 센트럴교회)

가짜 뉴스의 흥수 시대를 살면서...

작년 한국의 대선을 전후에서 자주 들락거리던 페이스 북을 끊었다. 내 기기 화면의 f+ 아이콘은 지웠지만 계정은 아직도 살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심한 그 날 이후에 한 번도 로그인을 해 본 적이 없었다. 관계망을 차단한 이유는? 첫째는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

기는 것이 큰 문제였다. 페친들의 사연과 곁들여 올려놓은 그림들을 클릭! 클릭! 하다 보면 한 두 시간 쯤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고 남은 것은 언제나 후회의 반복이었다. 별것도 아닌 것에 시간을... 그 시간에 성경을 읽었다더라면... 기도를 했다더라면... (때북을 끊었다고 성

경과 기도에도 더 열심하지는 못하지만...ㅎㅎ). 적어도 죄책감은 만지지 않아서 좋다. 두 번째는 자신이 맺고 있는 페친들은 대개가 공감대가 유사한 이웃을 받아들여지게 된다. 사물의 관점이나 사상이나 국가관도 유사한 이들로 페친 그룹은 점점 더 확

대되어간다. 개인은 약한데 공동 그룹이 되면 강력한 힘을 드러내려는 본능이 작동하게 된다. 안으로는 자신의 주장과 의견을 강하게 방어하게 된다. 반대로 관점이 다른 그룹을 향해서는 상대방의 폐악을 지적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주장까지도 동원하게 된다. 이때 쓰여지는 수단이 가짜 정보를 실제 정보로 둔갑시키는 것이다. 없는 것을 있었던 것으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합성 사진까지 제작해서 올리기도 한다. 이때 같은 그룹의 페친들은 공감에 아주 좋아요! 연신 클릭! 클릭하여 조회수를 의도적으로 높게 만든다. 사실 여부도 따지지 않고 진리로 받아들이고 믿어 버리고 타인들에게도 공유하는데 충성스럽게 퍼 나르는 작업들에 몰두하게 된다.

삼시간에 몇 십만 명에게 정보를 전하고 공감하는데 SNS만한 기기가 없다. 그런데 급속한 가짜 정보와 가짜 뉴스로 일어나는 폐악은 실로 충격적이다. 최근 인도에서는 가짜 정보, 가짜 뉴스로 목숨을 빼앗긴 희생자들이 지난 5월

이후 12명이나 된다고 보도했다. 무고한 행인 5명이 구걸을 하며 살아가는데 이들이 어린이 유괴범들이라는 가짜 정보와 가짜 뉴스를 퍼 나름으로 순식간에 순진한 인근 주민들이 폭도들로 변해서 무참하게 저들의 생명을 빼앗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살인 범죄가 발생했다고 한다. 대중은 마치 진리인 것으로 세뇌되어 살인을 하면서도 전혀 죄책감이 없는 오히려 정의의 사도로 착각하고들 있다고 한다. 정부가 나서서 방송을 하고 경찰을 동원해도 시민들은 오히려 역선전이라고 불신도가 극에 달했다고 한다. 당국에서는 가짜 뉴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를 통한 인터넷 접속과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를 차단하기까지도 했다고 한다.

대체 왜? 가짜 뉴스 가짜 정보를 퍼뜨리게 될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 남들이 모르고 관심이 없던 정보를 제일 먼저 전하고 퍼뜨림으로 자신의 똑똑함을 과시하려는 비뚤어진 영웅심이 주요한 요인이라고 한다. 특정 집단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고 주목을 받고 싶은 동기가 순진한 이웃들에게 가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웃들의 관점을 흐리게 만드는 무책임한 처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땅치 않다. 설사 이웃의 범죄를 목격했다고 해도 함부로 퍼뜨릴 만하다고 성경은 가르친다(마16:15-). 교회 개혁을 주장한다고 하면서 교회와 목회자들의 허물이나 약점을 과장, 왜곡되게 보도하여 주목을 받으려는 비뚤어진 미디어 기관과 종사자들은 스스로 돌이켜야 한다. 진실한 성도의 경건 유지를 위해서라도 가짜 뉴스의 채널을 과감하게 통제하고 말씀과 주님의 뜻 앞에 더욱 집중하는 영적 풍토를 일으켜야 하는 시대에 직면해 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릇을 거둬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잠17:9).

jykim47@gmail.com

푸/른/초/장

나성균 목사 (살롱장로교회)



급변 전환기처럼 많은 사건들이 있었던 때가 드물다. 2월 중하순의 평창올림픽부터 시작하여 4/27 남북 정상회담, 6/12 미북 정상회담, 6/13 한국 지자체장들과 국회의원 보궐선거 그리고 10여일 이후부터 이루어진 월드컵 축구 매치 드디어 6/27 세계 최강 독일을 꺾은 대한민국의 축구팀과 그로인한 세계 각국의 뜨거운 반응 등등 실로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우리는 그야말로 뉴스와 사건의 소용돌이에서 살고 있다.

이제 이러한 다사다난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가는데, 과연 우리의 몸과 마음은 우리가 참으로 원하는 대로 잘 살고 있는가?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방향으로 살아가고 우리에게 흐트러진 인생을 선물하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방향이 아닌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인생 때문에 애매우지는 않는가? 특히 영적으로 바로 나아가야 할 방향의 이상으로 나와 가정, 교회, 이웃과 한국 그리고 미국과 세계가 우리의 심각한 반성과 깨도 세계가 우리의 심각한 반성과

역사가 찬란히 빛나게 되었던 일들이 항상 반복되었다. 역사의 어두움이 짙고 모든 사람이 희망을 잃고 통곡할 수밖에 없을 때는 오히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나타나는 때이다. 그러므로 많은 제자들을 길러낸 김의환 총장은 이 대목에서 '오히려 베드로가 이 어려운 역경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위기를 위대한 기회로 만들어야 했다'고 설교하였다. 무슨 말인가? 베드로가 자기의 위기를 지적한 예수님의 말씀을 심각하

아졌는가? 하는 해석이다.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참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 불리의 순간도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거니와 성경과 교회의 역사는 바로 그런 역설의 증거를 수없이 보여주기에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그렇게 만들자는 것이다. 아무도 안 된다고 할 때는 오히려 가장 좋은 기회가 얼마든지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이렇게 반드시 사건과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 아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언제, 우리에게 우리들만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하게 시험 당하게 하시거나, 우리 힘으로 감당치 못하는 시험을 당하게 하시었는가? 언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

모르다고 부인할 때 특별히 마지막에 저주하며 맹세하여(마26:74) 예수님을 모르다고 할 때 예수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는 사실이 다(눅22:61). 베드로는 자기 한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여지없이 스승을 내팽개칠 때, 수만 수억 톤은 족히 되었을 온 인류의 고통스런 죄 짐을 지고 계셨던 예수님 그분은 그 아프고 무거운 죄짐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문제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아니 그에게 그 아픔 속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이다.

이 뜨거운 사랑이 그에게 닿을 때 그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뜨거운 사랑이 여지없이 전달되자 그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하였다.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얼마나 울었

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의지하자!

유명한 연세대 영문과 오화섭 교수의 딸로 수필가, 배우, 방송인, 희곡작가였던 모든 것을 가진 오혜령님이 환창 잘 나가던 시절 몸이 망가져 감진 결과 위암과 임파선암으로 3개월 시한부 인생 선언을 받는다. 투병 투쟁 중 마지막 90일을 며칠 지난 어느 날, 그날도 물만 마셔도 토하고 혈변을 계속하던 어느 날 그를 지극히 아끼던 한 사람이 백합 50송이를 보내왔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쪽지와 함께. 하도 감사하고 기가 막히고 그 꽃 속에 코를 묻고 30분쯤 지났을 때 정신이 몽롱하여지더니 누군가 목덜미를 확 낚아채는 것이 아닌가?

방바닥에 나동그라진 그는, 순간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죽음의 한복판까지 찾아오시는 당신은 누구시란 말입니까?' 앙탈을 하고나니 미션스쿨을 나왔고 명백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예수님을 외면하면서 살던 자신이 생각나서 두려움이 그녀를 엄습하였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었다. 두렵고 무섭고 지은 죄가 두려워 벌벌 떨며 회개의 눈물만 쏟아냈다. 죄목을 적은 화선지를 촛불에 태우며 수없는 초를 불태우며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오한이 온몸을 휘 감는다. 죽음을 다시 직감한 그녀는 추워서 이불을 끌어당기어 차가운 몸을 덮으려다가 뜻밖의 몸의 변화를 감지한다.

겨드랑 밑의 몽우리들도 어깨 죽지에 붙어있던 복숭아씨만한 몽우리도 다 사라져버렸고 동산만한 배의 복수도 다 꺼져 버리고 완전히 새사람이 되어 있었다.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배반한

베드로에게 사랑의 시선을 주시던 예수님께서 그녀에게도 모든 병마를 사라지게 하시고 새 인생을 주시었다. 그 뒤로 그녀는 감격하여 경기도 주변 한 작은 마을에서 버림받은 노인들을 돌보며 하루에 9시간씩 기도하였다.

통곡하던 베드로, 또 자신의 죄를 인하여 울부짖던 오혜령 자매를 기억하자! 오순절 성령강림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어 위대한 새 시대를 열게 하시고 새 역사의 주역을 삼으셨다. 초대교회 주역으로 말이다. 사람이 없어서인가? 아니다. 한번 부르신 하나님의 은사 그리고 그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이다. 죄 없는 천사, 죄짓지 않은 천사를 보내시어 오순절을 감당하게 하지 않으셨다. 우리에게 진정한 교훈이요 모범이다. 반년을 지나보니 후회요 절망이요, 감함함이요 답답하기 그지없으나 하나님의 바라보니 베드로를 기억하니 희망이요 능력이요 기대요 새 시대의 주역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부흥을 다시 허락하시고 모든 역사의 주인공으로 한반도를 감동하고 복화의 영혼들을 아니 더 나아가 세계의 영혼들을 주께 바치게 하옵소서!

revskna@gmail.com

반년을 살아 보니

(누가복음 22장 54-62절)

1. 자신 만만한 우리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갓세마네 동산에 오를 준비를 하시던 예수님은 자못 심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수없이 수난을 예고하시던 주님은 첫 성찬식을 거행하시고 죽음과 배반을 예언하시며 우위다툼의 어리석음을 통렬히 책망하시고 누가복음(22:31-32)에서 직접 시몬의 이름을 거명하시면서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정구하였으나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고 하셨다. 베드로가 무엇인가 대답하였는가? "주님 저를 모르십니까? 저 의리의 사나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안 버리고 주님과 함께 육에 가는 것도 죽는 것도 준비하였습니다."

얼마나 베드로다운 말인가? 멋지고 사나이다운... 그러나 그의 결과는 얼마나 처절하였는가? 그의 인생의 최대의 위기와 패망을 여지없이 경험하고 말았다. 무엇이 그를 그토록 비참하게 만들었는가? 너무 자신만만함이다. 만일 그가 충격과 격적으로 쫓아 없던 예수님께 자신의 연약과 사대의 심각성을 호소하고 사단도 아는 마지막 갓세마네의 최후 최대 영적 전투를 직시하고 붙잡아 주시기를 눈물로 애원하였다면 이렇게까지 그의 인생이 비참하여졌을 것 같지는 않다.

자신만만, 그것은 베드로만 아니고 우리도 그렇게 비참한 패배를 당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지난 반년을 회고하여 보자. 아니 그

참하게 만들지 않았는지? 실상은 죽은 자라고 말씀하시던 라오디게 아교회를 책망하시던 주님이 이름 뿐인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실망을 하십니까? 교회가 힘을 잃을 대로 잃었다. 지도력과 영향력은 땅을 기고 있다. 어느 통계에 의하면 그 많은 돈을 들여 아름다운 건물을 끝낸 교회들이 빛 감당이 되질 않아 문을 닫고 팔려가는 숫자가 일년에 평균 100교회라니 어찌다가 우리에게 이런 위기가 닥치게 되었는가?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겸손과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사랑하며 그를 위해서 순교하던 순수한 신앙, 그뿐 아니라 그러한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던 믿음이 아니겠는가? 6.25한국전쟁은 전국이 초토화되고 남은 것은 가난과 기근과 절망 밖에 없을 때, 분명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소망을 주시던 한국 최고의 부흥사 이성봉 목사의 경건과 겸손과 영성을 회복하여야 하겠다. 그분은 한주 동안의 부흥회를 사력을 다하여 감당하시고 은혜 받은 성도들이 하늘같이 천사같이 떠받들던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 나 이성봉이기를 믿지 마세요. 나는 언제나 어디서든 무슨 죄를 지을지 모릅니다'라고 외치곤 하셨습니다. 그분의 겸손을 본받아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도 다시금 일어서야 한다.

2. 기회를 포착하지 못한 우리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이다. 실로 성경의 오랜 역사나 2천년의 교회 역사를 보면 언제나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탄식할 때, 모두가 안 된다고 부정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게 들고 통곡하고 매달리며 주님과 함께 갓세마네의 기도를 승리로 이끌어 성령 충만하여 대제사장의 뜰로 나아갔다면 일을 냈을 거라는 것이다.

예수님을 정죄하는 수많은 군중들과 종교지도자들을 향하여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나는 이분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같이 지낸 사람입니다. 나는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 이분은 앓은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며 중풍 병자를 고치실 뿐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메시아적 기적을 수없이 베풀었고, 이분이 주신 메시아적 권위 있는 하늘의 메시지와 구약의 메시아 예언 성취를 이분을 통해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나는 이분이 변형된 하늘의 원래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라고 성령으로 설득하였더라면 오순절 성령강림 후에 그들 가운데 수없이 회개하고 돌아왔으며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하단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에 복종하니라" 함을 보아서 그들 중에도 얼마든지 택한 백성들이 있을 수 있었을 것이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을 것이며, 그랬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정죄를 받는 그 자리가 그렇게 쓸쓸하고 황량하기만 하였을까 라는 것이다.

물론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오셨으니 당연히 인류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당신의 십자가의 길을 가셨겠지만 그토록 처절하고 외롭고 완벽한 배반만이 존재하였겠는가? 아니 오순절 이후의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발전과 성장, 복음화의 규모가 훨씬 더 차이가 날 수도 있었지 않

지 않은 적이 있었는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믿는다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당하는 현실의 부정적이고 뒷감잡지 못하는 것 같지 않은 우리 기독교의 답답한 현실을 승리의 기회로 잡아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기독교의 진수를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극도의 개인주의, 편리주의, 다원주의, 이기주의 사회에서 참된 하나님 사랑, 참된 이웃사랑, 기독교의 참된 가치의 진정한 행동까지 표현, 즉 온몸으로 살아내는 작은 예수님의 삶이 얼마든지 새롭게 사회를 철저히 구해내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3. 울부짖는 우리

갓세마네 기도의 동산으로 11제자를 동원하셨던 예수님은 수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따로 데리고 가서서 곁에 두시고 께어 나와 함께 기도하라고 하셨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대로, 육체에 계셨기 때 몸부림치며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라고 세 번이나 기도하시는 동안에도 한번도 함께 기도하지 못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처절한 실패를 여지없이 경험하였다. 예수님은 피땀 흘려 기도하면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음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여 승리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묵묵히 십자가를 지실 준비를 하실 때, 정죄 당하시던 같은 장소, 대제사장의 뜰에서, 베드로는 사랑하는 스승을 여지없이 부인하여 세 번이나 모르다고 한결같이 관계를 단절하였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준비되지 않은 베드로는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가? 사랑과 통곡 이것이 없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회복된 베드로를 상상이나 할 수가 있을까? 얼마나 그가 충격이 컸으면 일생 닭소리만 나면 절절 매였겠는가? 얼마나 얼마나 철저한 회개였으면 그가 그렇게 그렇게 살아갔을까?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 때문에 그가 완전히 달라졌던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우리는 얼마나 자신만만하였고 교만하였는가? 얼마나 큰 소리치고 다른 기독교 나라,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멀리하였는가? 우리는 또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낙심하며 일어 서지 못하였던가?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으로 증거해야 할 때라고 왜 말 못하였는가? 왜 주저만 앉아 있었는가? 어느 최근 신문(미주중앙뉴스 6/21/18 김현일)에 보니 우리 교포들을 향하여 이렇게 기록하였다 "선량한 교민을 위한 딱한 제안-북핵은 아슬아슬하고, 한국 야당은 지리멸렬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압승한 여권의 향로는 안개 속 같고... 공연히 속 끓는니 참고 기다리는 게 세 번이나 기도하시는 동안에도 한번도 함께 기도하지 못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처절한 실패를 여지없이 경험하였다. 예수님은 피땀 흘려 기도하면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음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여 승리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묵묵히 십자가를 지실 준비를 하실 때, 정죄 당하시던 같은 장소, 대제사장의 뜰에서, 베드로는 사랑하는 스승을 여지없이 부인하여 세 번이나 모르다고 한결같이 관계를 단절하였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준비되지 않은 베드로는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CDC조사-공립학교의 세뇌교육으로 급증하고 있는 미국의 동성애 청소년

미국 공립학교가 동성애 의제를 과도하고 편향적으로 밀어붙인 결과로 많은 어린이들이 동성애 운동에 참여하고 그것에 따른 성적체성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이번 CDC(질병관리부,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의 조사결과가 확인시켜주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알립니다.

미국 질병관리부가 2년마다 하는 "청소년 위험성 행동 조사(Youth Risk Behavior Survey, YRBS)"는 39개 주와 21개 큰 도시 학군에서 9학년부터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입니다.

이 조사는 학생들에게 "이성애자,

면 동성애 및 성적체성이 미정인 학생들이 더 많이 성적(sexually)으로 활동을 하기에 이들은 13세가 되기 전에 성적 경험을 이미 했으며 주로 4명 이상의 섹스 파트너가 있고 성적 학대나 신체적 폭력도 13세가 되기 전에 경험했다는 보고입니다.

주류 미디어는 동성애나 성적체성 학생들이,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학교에 가지 않거나 인터넷 또는 학교 캠퍼스에서 괴롭힘을 당한 사건이 더 많고 자살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합니다만, 이미 의학적으로나 심리학 조사결과 동성애자들의 자살가능성은 학교나 주위학생들이 그들을 왕따 시킨다는 것은 전

성(sex)경험에 있어서는 유스(Youth) 아이들 중 이성애 학생들의 39.1%가, 동성애자 및 성적체성 미정 학생들의 76.8%가 섹스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13세 이전에 성(sex) 경험을 한 아이들의 조사결과입니다. 이성애 청소년들의 섹스경험이 3%였지만, 동성애라고 자칭하는 아이들은 10.2%가 13세 전에 섹스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유전적 연계를 찾기 위해 수많은 의학 조사와 연구를 했지만 결국 동성애자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고 의학적으로 확실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공립학교

이 청소년들이 진정 필요한 것은 "LGBTQ PRIDE MONTH-동성애 금지의 달" 같은 것을 요란하게 각 도시마다 열면서 어린 아이들 앞에서 어른남성들이 거의 나체수준에서 키스를 하고, 어른 여성들이 물고기 잡는 그물 같은 옷을 입고나와 키스를 하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공부해야 할 학교에서까지 그런 변태적 성행위와 라이프스타일이 정상일 뿐 아니라 "사회정의"를 지키는 것이라고까지 교묘하게 가르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자녀들과 다음세대를 결국은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매우 무책임한 지



6월에 있던 동성애 금지의 날 퍼레이드에 아이들까지 동원시켰다.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또는 미정(undecided)"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한 후 청소년들에게 동성애 행위와 연결된 여러 위험성 있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은 가슴 아픈 결과를 보여줍니다.

CDC 조사 결과 정리

동성애 행위를 한다고 하는 학생들이 2015년에는 11.2%였는데 2017년에는 14.6%로 증가했습니다. 생명의 위협까지 갈 수 있는 동성 성행위를 하는 동성애자들의 비율은 여전히 이성애자들보다 높습니다.

"양성애자(남녀 오가며 성행위하는 자)"도 급증한다는 보고인데 특히 소녀들 사이에 더 급증하고 있습니다. 양성애 소녀들이 2015년에는 9.8%였고 2017년에 13.1%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적체성을 "미정(Undecided)"이라고 쓴 청소년들이 이성애 청소년들보다 위험한 성적 실험들을 더 많이 한다는 보고서입니다.

YRBS의 2015년 조사결과를 보

면 검증되지 않았으며 현실성이 없는 주장입니다.

만일 그들이 진정 왕따를 당했다면 전국이 "동성애 금지의 달"을 만들어 수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동성애는 주로 성적체성의 혼돈과 가정의 불화함으로 인한 정신적 문제임이 수많은 조사결과와 나온바 있습니다.

또한, 성적체성을 "미정"이라고 스스로 자칭하는 청소년들은 비디오 또는 컴퓨터 게임이나 텔레비전을 하루에 적어도 3시간 이상씩 시청하고 비만율이 평범한 이성애 청소년들보다 더 높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마리화나/마약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조사결과 이성애 학생들은 12.2%가, 동성애 및 성적체성이 미정인 학생들은 42.2%가 마리화나/대마초를 피운 후 운전을 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술을 마신 경험에 있어서는 이성애 아이들은 14.9%가, 동성애자 및 성적체성 미정 학생들은 41.6%가 13세 이전에 술을 마셨다고 대답했습니다.

들은 자유진보주의 정치세력들과 동성애 운동가들과 손잡고 LGBTQ 행동들이 마치 학생들에게 꼭 필요하고 긍정적인 것인양 아이들에게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캘리포니아나 뉴욕, 오레곤, 시카고 같은 대도시 학군 중에서 진보 주정착인들이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도시들만에 동성애학생들과 스스로를 "미정체성-undecided"라고 하는 학생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들이 지금 공립학교에서 배울 뿐 아니라 운동일 수입되고 선동되는 것은 이런 "미정체성, 동성애"를 따라가는 삶을 살도록 상급까지 해주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들이 진정 필요한 것 sarahspring2009@gmail.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저는 교회의 안수집사입니다. 과거의 어떤 일로 인해 2명의 사람에게 대한 분노와 증오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아직도 그 사람들만 생각하면 분노와 복수심에 불타 있습니다. 이 미움과 복수의 감정이 시간이 지났는데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신앙인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인생은 인간관계입니다. 살다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다보면 내가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내가 남에게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웬만한 것은 지, 정, 의라는 인간의 자기 방어기제를 사용하여 쉽게 넘어가고 잊어버리지만 그 중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상처가 문제입니다. 마음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는 더 깊은 상처가 되고 깊은 상처는 마음속에서 자리를 잡게 되면서 마음의 쓴뿌리가 되고 그 상처는 사람을 포로 되게 합니다.

문제는 그 상처의 감정은 속으로는 들어가면 사람을 우울하게 만

원수 갚는 것은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겨야

들지만 밖으로는 쉽게 분노로 표출됩니다. 특히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대한 분노와 복수의 감정으로 가지게 만듭니다. 중요한 문제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복수하기를 원하지만 문제는 내가 먼저 망가지고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소년이 숲이 있는 언덕으로 올라가다 그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약이 오른 소년은 돌부리를 파헤쳐 뽑아 버리려고 몇 시간동안 아무리 파도 끝이 없었습니다. 땅 위의 작은 돌은 큰 빙산의 일각과 같았습니다. 땅을 파보니 그것은 큰 바위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큰 바위는 너무나 크고 무거운 소년의 힘으로는 다 파내기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은 그 바위를 다시 흙으로 파묻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소년이 걸려 넘어졌던 돌부리가 남았습니다. 그것까지 완전히 흙으로 파묻었습니다.

집사님, 과거의 기억 중에 있는 쓴 뿌리 같은 악 감정을 파헤쳐 증오하고 복수하려고 말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처의 문제들을 주님께 가지고 가서 십자가 밑에 파묻으십시오.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복수하려고 하면 내가 먼저 망가집니다. 그것을 다 파헤쳐 가라리며 복수하려 말고 조용히 덮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수 갚으려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12장 19절 "너희가 진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과거 누가 나에게 준 상처 파헤치지 말고 조용히 덮으십시오.

그 실례로 다윗은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 같은 사울 왕을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두 번이나 있었으나 그는 자기 손으로 복수하려 하지 않았고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했습니다.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시57:7-8).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음악대학 및 대학원

(BM,MM,DMA 학위과정)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교수진! 실기 일대일 교육, 100% 온라인 이론 강의!

인터넷이 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CAMS 시스템을 통하여 100% 온라인 음악 강의를 실시되고 있으며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교수진들의 최고의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

최고의 교수진

유럽과 미국에서 최고의 기량으로 각 음악실기 분야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갖춘 교수들로부터 일대일 실기 실습과정이 on and off line 에서 이뤄지고 있다

세계 음악지도자 발굴과 양성을 위해 Missouri주 Wentzville에 32년의 전통을 지닌 Midwest University의 교수들은 유럽 및 미국의 유수 음대대학원 음악박사 학위자들로 각 영역에서 최고의 기량과 리더십으로 겸비된 연주자들로써, 현재 지도를 받는 학생들 가운데엔 한국 예술종합학교, 이탈리아의 Giovanni Paisiello Conservatory, 독일의 Hochschule für Musik Karlsruhe, 미국의 Manhattan School of Music, Johns Hopkins Peabody Conservatory, The Juilliard Music School 출신자가 있다.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 학사 Bachelor of Music 129 학점
- 석사 Master of Music 48 학점
- 박사 Doctor of Musical Arts 60 학점
- 전공 : 피아노, 음악코칭, 성악, 지휘, 작곡, 현악, 관악기, 음악융합예술

모집기간

2018년 7월 13일까지

지원자격

- 학부 : 고등학교 졸업자 혹은 동등 학력자
- 대학원 : 음악대학졸업 (Musical Arts Convergence 전공은 음악교육대학 졸업자도 가능) 혹은 동등 학력자
- 박사 : 학부와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음악을 전공한 자

학위 취득방법

-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SEVIS I-20 혹은 J-1 Visa
- 직장, 사역을 떠나지 않고 어디서든지 세미나, 소집특강, 온라인으로 학점 취득
- 영어, 한국어, 중국어 언어로 학점 취득 가능

Midwest 음악동문

구두회박사 (前 숙대 음대 학장), 황병덕박사 (前 연대 음대 학장), 박재호박사 (前 한양대 교수), 윤학원박사 (前 중앙음대 학장), 전희준박사 (前 찬송가총회대표) 등 일반 음대교수 수십명이 활동중이다.

입학, 편입, 유학 등 자세한 문의는 미국본교 (636)327-4645 usa@midwest.edu / 입학상담 Dr. Dae Kim (dgkim@midwest.edu) / 등록상담 Mr. Jay Ham (muadm@daum.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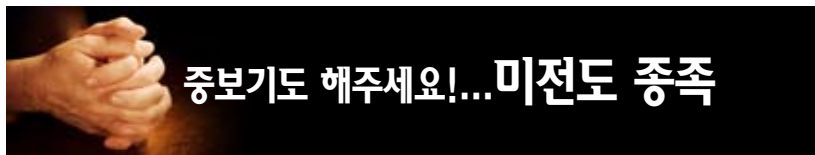
Midwest University
www.midwest.edu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 (636)327-4645 / Fax : (636)327-4715
E-mail :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 (571)730-4750 / Fax : (571)730-4751
E-mail : wdc@midwest.edu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부르키나파소의 푸굴리(Puguli)



푸굴리 또는 Pwa 종족은 가나 북서부 지역과 남부 부르키나파소에 거주한다. 시살라 종족으로 알려진 보다 더 큰 종족 그룹에 속하는데, 문화, 거주지, 역사 특히 언어 등에 있어 유사점이 많이 때문에 이 두 그룹을 시살라로 간주해 하나의 종족으로 보는 이들도 있다. 이 두 종족은 니제르-콩고 어족에 속한 아틀란틱 콩고어의 분파인 유사언어들을 사용한다.

푸굴리 종족은 부르키나파소에서도 나무들과 숲이 점점이 줄어들어 있는 사바나 초원 지역에 거주하는데, 이 지역들은 19세기와 20세기 초반 대영제국의 식민지 통치의 영향을 거부해 격리된 지역이기도 하다. 대영제국은 시살라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Tamu에만 학교나 병원 따위의 현대적 시설이 갖추어진 정부 본부를 건설했다. 시살라 종족들과 마찬가지로 푸굴리 종족은 시가지를 벗어나 좁은 통로들이 이웃들을 연결해주는 조밀한 촌락들에서 진흙 움막을 짓고 살았다.

삶의 모습

푸굴리 종족은 농업경제에 기반을 두고 가족단위로 식량을 자급자족을 한다. 조, 양, 팥, 쌀 그리고 콩 등의 작물을 재배하며 여자들은 집에 딸린 밭밭을 가꾸어 오크라, 양파, 토마토 그리고 붉은 고추 등을 재배하는데, 견과류들 혹은 야생 과일 따기, 고기잡이와 사냥 등으로 농사의 부족분을 충당하며 또한 소, 양, 염소, 돼지, 닭 등의 가축을 기르기도 한다.

푸굴리 사람들은 가난을 개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에 반영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가족 전체가 일을 분담한다. 남자연장자는 곡물의 생산과 소비를 감독, 조절하는 반면 젊은 남자들은 토지를 갈고 경작하는 등의 힘든 농사일을 한다. 여자들은 파종, 김매기 그리고 추수한 곡식을 집으로 나르는 일 따위를 돕기도 한다. 남자들은 또한 사냥, 낚시, 약초 재배, 목각 제품을 만드는 일과 대장장이 일을 하며, 여자들은 식사 준비, 가족들과 어린이를 돌보며 숲속 부산물을 쪼거나 도자기를 굽기도 한다.

여자가 첫 아이를 출산해야 비록 소한 사람의 여자로서 간주되며,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는 것은 남편과 아내 사이의 결혼을 강화시켜 주며 여자로서의 위치를 견고하게 해준다. 어린 아이는 항상 어머니의 보호를 받고 아버지를 포함한 다른 가족들에게도 관심의 대상이다. 아이들은 사랑과 애정을 듬뿍 받는다. 딸들은 결혼 전까지 어머니 곁에 있는 반면, 아들들은 6세부터 janwuo의 어른 연장자와 함께 살게 된다.

신앙

푸굴리 종족 가운데 무슬림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더러 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의 전통 종족 신앙을 따른다. 그들은 "Wiise"라고 불리우는 최고신이 만물의 창조자라고 믿는다. Wiise는

인간들과 아주 친밀하며 그들의 생활의 사소한 것까지도 지켜보고 있지만 Wiise의 실제적 거처는 아무도 모른다고 믿는다. 푸굴리 사람들은 그들이 지키는 도덕적 행위와 의식들은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믿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인간이 없는 우주도 존재할 수 없다고 믿는다.

필요로 하는 것들

푸굴리 사람들을 위한 기독교 자료들은 전무하다. 그러나 현재 한 개의 선교단체가 그들 가운데 사역하고 있다. 복음을 들을 기회가 거의 없었으므로 푸굴리 종족 가운데 개종자는 거의 없다. 푸굴리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구원의 지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복음 전파의 노력이 시급하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학교에서 성경 나눠주면 경찰 부릅니다'

'누구든 초등학교에서 성경을 나눠주면 경찰을 부를 것입니다.'



미국 일리노이주 한 도시의 교육 당국이 최근 각급 초등학교에 보낸 공문 내용이다. 학교에서 성경 배포 행위가 지속될 경우 공권력을 부를 수밖에 없으니 성경을 취급하지 말라는 경고다. 이는 공공장소에서 기독교적 가치를 강요해선 안 된다는 무신론 단체의 거센 압박에 따른 조치다. 미국 크리스천들은 반발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보수 성향의 폭스뉴스 진행자인 토드 스타른스(Todd Starbuck)는 최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일리노이주 중서부 도시 라 하프(La Harpe) 교육 당국이 각급 초등학교 교장에게 보낸 공문에서 성경을 학생들에게 배포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고 알렸다.

앞서 미국의 대표적인 무신론 단체인 '종교로부터의 자유 재단(Freedom From Religion Foundation·FFRF)'은 지난 5월 라 하프 교육감에게 항의의 서신을 보내 라 하프 초등학교에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배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FFRF는 릴라 맥켄(Lila McKeown) 교장이 교사들에게 나눠준 문서에서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축하하는 행사'라거나 '전지전능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 등의 기독교적 가치를 담은 표현을 썼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학교 정문에서 성경 배포 행사를 맥켄 교장이 허용했다면서 교육 당국은 이를 막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라 하프 교육 당국은 맥켄 교장은 성경 배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교사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기독교적 용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FFRF의 공동대표인 애니 로리 게일러(Annie Laurie Gaylor)는 "종교란 원천적으로 분열을 초래할 수 있으며 다양한 믿음을 지닌 어린 아이들이 다니는 공공장소인 학교에서 종교를 강요해선 안 된다"면서 "교육 당국은 (성경 배포와 같은)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FFRF의 요구에 맞춰 라 하프 교육 당국은 학교에서 누군가 성경을 배포하는 것을 목격하는 즉시 교육 당국에 의무적으로 알리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내 공공장소에서 기독교적 가치를 몰아내려는 FFRF의 시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13년 6월에는 캘리포니아주 아이덜와이드 초등학교의 기드온 성경 배포를 저지했고, 12월에는 위스콘신주 위스콘신 대학 콘퍼런스 센터의 손님 접대용 객실에 마련된 기드온성경을 모두 없애라고 요구했다. 이듬해 1월에는 플로리다주 파이널러스파크 시장에게 항의의 서한을 보내 시정 회의실에 전시된 성경을 치우라고 경고했다.

FFRF의 등쌀에 캔자스주의 그레이트 밴드 고등학교(Great Bend High School) 교장은 졸업식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용하는 축사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지난달 약속했다. 일리노이주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올 초 학부모 초청 강연을 금지했고, 오클라호마 교육 당국은 역시 올 초 목사가 풋볼팀을 위해 기도하는 행위를 막았다.

물론 모든 학교가 FFRF에 굴복하는 것은 아니다. 테네시주의 카투사(Catoosa) 카운티 교육 당국은 올 초 링골드(Ringgold) 고등학교의 졸업식 기도를 금지하라는 FFRF의 요구를 '이미 짜여진 이벤트이고 학생들이 주도하는 행사'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인디애나주 교육 당국도 점심시간 목사가 주도하는 리더십 프로그램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공중극에까지...' 콘서트 같은 예배, 어떻게...

무대엔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고 라이트에선 번쩍번쩍 빛이 나온다. 하늘에선 공중 곡예사가 빙글빙글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마이크를 쥔 가수는 목청껏 노래를 부르고 성도들은 무대 앞에서 이리저리 마음껏 소

리치며 떠난다.

슈퍼스타의 콘서트가 아니다.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교회의 예배 모습이다. 박수 소리가 간간히 나오던



과거와는 판관이다. 미국의 젊은 크리스천들을 사로잡고 있는 일명 '크리에이티브 워십'이다. 그렇다고 "안개와 퍼포먼스를 보면서 믿을 수 없는 영적 경험을 했다"며 반기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다. 보수적인 크리스천들은 "그건 아니지"라며 반발하고 있다.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크리에이티브 워십은 '엠버시 처치 인터넷서널(Embassy Church International·이하 엠버시 처치)'이 주도했다. 엠버시 처치는 5년 전 애틀랜타 주에서 대졸자 12명이 모여 시작했다. 초기엔 별다른 성장을 거두지 못했지만 예배에 각종 창조적인 기술을 접목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콘서트 장처럼 조명과 안개 효과를 넣자 주일 예배 참석자가 400명으로 크게 늘었다.

엠버시 처치의 아자니 브라운 목사는 "예배 때 안개를 뿌리니 믿을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됐다"면서 "에너지 넘치는 예배가 이뤄지면서 힐링과 기적을 체험했다. 창의성을 가미하면서 우리는 성도들에게 교회의 다음 단계를 선보일 수 있게 됐다"고 자랑했다.

그는 또 "오랫동안 우리는 안개나 라이트를 사용하지 않았다"면서 "음악과 노래, 라이트와 안개는 다음 세대 크리스천들에게 매우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교계에서는 일단 크리에이티브 워십을 반기는 분위기다. 교회에 등을 돌리던 젊은이들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믿기 때문이다. '2010 전미 기독교인 대회'에서는 '보수 교단이 혁신적인 예배를 채용하면서 드러마되던 성도수 증가를 경험했다'는 보고가 나왔다.

엠버시 처치는 기세를 몰아 지난 4월 예술과 문화, 미디어와 대중문화, 기술 등이 총망라된 콘퍼런스를 열기도 했다. 브라운 목사는 "우린 거대한 교회를 꿈꾸지 않는다"면서도 "사람들이 감성적이고 물리적인 면에서 힐링을 얻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예배 틀을 크게 바꾼 엠버시 처치의 행보를 놓고 미국 교계에서는 찬반 논란이 뜨겁다. 교회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과 건강할 예배 문화를 해친다는 비판이 엇갈리고 있다.

교회 전문가인 앤 브록은 "대중문화의 기법을 차용한 워십은 지나친 감이 있다"면서 "(각종 기법이 가미된 예배가 일반화된다면) 나를 비롯한 크리스천들은 온전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들이 조각한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일부 유명 목회자들은 "안개와 라이트를 쓰지 않고 순수한 예배로 돌아가야만 진실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브라운 목사는 이 같은 지적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기술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줄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기술이 새로운 세대 사람들을 교회의 문까지 인도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北, 美에 제재 해제하라' 압력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북한이 더 이상 비핵화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미 CNN방송은 23일 북핵 협상에 정동환 미 정부 관리가 인용해 "북-미 간 후속협상은 미 정부가 영구적 평화를 보장할 '가장한 조치'와 평화협정 동의 여부에 달려 있다"면서 "미국이 현행 정전협정을 영구적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것을 꺼린다면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북한이 비핵화 후속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정치적 의미의 '중전선언'에서 더 나아가 국제법적인 효력을 지니는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앞서 지난 5월 2차 남북 이후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

핵화에 대한 반대급부도 체제보장과 평화협정 체결, 미국의 경제지원을 원했다"고 밝힌 바 있다.

폼페이오 장관의 지난 6·7일 3차 남북 당시 북한은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을 맞아 중전선언을 미국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일각에선 중전선언이 북한에 대한 일종의 '체제 보장'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미국이 좀 더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와 프로세스를 북한에 요구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다만 미국이 북한과 법적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면 미국 상원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북한을 향한 비판적 목소리가 큰 만큼 행정부로서도 의회를 설득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한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핵 협상이 미진하다는 이유로 자신이 측근들에게 화를 냈다는 워싱턴 포스트(WP)의 보도가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지난 9개월 동안 미사일 발사도, 핵실험도 없었다. 일본이 행복하고 전 아시아가 행복하다"면서 "그러나 가짜 뉴스들은 나에게 묻지도 않고 내가 화가 났다고 말한다. 그들은 틀렸다. 나는 아주 행복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북한인권법 5년 연장 법안에 서명

북한인권법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이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식 발효됐다. 백악관은 이날 트



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인권과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법률인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작년 9월 30일을 기해 만료된 북한인권법을 2022년까지 5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북한인권법에 대북 정보유입 수단과 내용을 다양화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즉 휴대용 저장장치 USB와 오디오, 영상 재생기,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웹페이지 등 다양한 전자매체들을 활용해 정보 유입 노력을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비정부기구의 대북 방송 활동 지원금을 늘리고 특히 탈북자가 관여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을 우선토록 했다.

지난해 9월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지난 4월 만장일치로 상원을 통과했고, 상원에서 수정된 법안은 다시 하원에서 합의를 거쳐 지난 6월 27일 최종 통과됐다.

현 시점에서 미국이 이 법안을 발효시킨 것은 북한의 최대 아킬레스 건으로 평가받는 인권 문제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6·12 북미정상회담의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쿠바, 사유재산 인정 개헌안 가결

전 세계에서 몇 남지 않은 사회주의 국가 중 하나인 쿠바가 42년 만에 사유재산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헌법에 있던 '공산주의 사회 건설' 문구도 개헌안에서 생략됐다. 이에 따라 쿠바의 사회주의 경제 노선이 일대 변화를 맞게 됐다.



쿠바 의회인 전국인민권력회는 사유재산 인정 및 시장경제 도입, 국가평의회 의장 임기 제한, 총리직 신설, 동성결혼 허용 등이 포함된 개헌안을 지난 21일 총회에서 가결시켰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국인민권력회는 쿠바의 정치·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주의'를 정립하기 위해 개헌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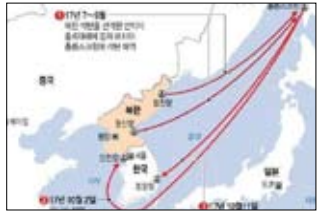
그동안 쿠바는 국유재산과 협동재산, 농민의 재산권만 인정해 왔다. 개헌안에는 사유재산 인정과 외국 기업 투자를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로이터통신은 쿠바의 경제성장률이 2016년 마이너스 0.9%, 올해 상반기 1.1%에 그치는 등 기존 사회주의 경제정책이 한계에 부딪혔다고 분석했다.

대통령에 해당하는 국가평의회 의장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장 임기는 5년 중임으로 제한되고, 총리직이 신설돼 내각에 대한 권한은 이원화된다. 하지만 공산당 일당 체제는 바뀌지 않는다.

에스테반 라소 국회의장은 이번 개헌안에 대해 "우리의 사상을 버리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쿠바는 사회주의와 주권, 독립, 번영이 지속가능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안은 11월 공청회를 거친 후 국민투표에 부쳐질 예정이다.

北 석탄선박 20여 차례 韓 항구 드나들었지만 억류는 0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수출을 금지한 북한산 석탄을 실어 나른 선박들이 최소 20여 차례 한국 항구를 드나들었지만 한 번도 억류되지 않았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9일 보도했다.



VOA 방송은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의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분석한 결과 '리치 글로리호'가 한국 항구에 16차례 입항했다고 전했다. 리치 글로리호는 지난해 10월 포항에 북한산 석탄 5000여톤을 하역하고 떠난 지 불과 한 달 만인 11월 포항을 다시 찾았다. 이후에도 묵호 울산 평택 인천항에 입항했다. 이 선박은 불과 2주 전인 지난 4일에도 부산항으로 들어왔다가 일본 해상으로 떠났다.

리치 글로리호는 한국을 드나드는 동안 억류 등의 제재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차폐팀은 지난 3월 리치 글로리호를 불법선박으로 공식 지목했다. 그러나 리치 글로리호는 이후로도 별다른 제재 없이 6차례 더 한국 항구에 입항했다.

금수 품목 이전에 관련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나포, 검색, 억류하도록 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2397호)가 지난해 12월 채택됐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2일 인천항에 북한산 석탄 4000여톤을 하역했던 '스카이 앤젤호'도 한국 항구에 6차례 더 입항했다. 스카이 앤젤호는 지난해 11월 부산항에 모습을 드러낸 후 후포 울산 평택항을 드나들었다. 그러나 이 선박 역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노국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선박을 억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관계 당국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필요할 경우 처벌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VOA 방송은 북한산 석탄 운반에 관여해 우리 정부가 지난 1월부터 억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토고 선적의 '델린트 에이스호'가 홍콩에 주소를 둔 중국 회사 소유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리치 글로리호와 스카이 앤젤호 역시 모두 중국 다련에 주소를 둔 중국 회사 소속이다.

"한국의 다문화캠페인은 이민정책 성공사례"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가 한국의 다문화캠페인을 성공적인 이민정책 사례로 꼽았다. 모든 선진국들이 당면한 고령화 문제와 이민 정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한 나라로 한국을 지목한 것이다.



FP는 16일 '한국인들, 타인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라는 제목의 분석기사에서 일제침략 이후 단일민족을 강조하던 한국이 2005년 이후 정부 정책과 언론 캠페인에 힘입어 이민자들을 포용하는 성숙한 사회로 거듭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FP는 특히 다문화를 수용하는 한국의 변화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빠르다고 진단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학교 교과서와 정부 정책, 국가 이미지는 한국인 혈통의 순수성과 통합을 내세웠다. 그러나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많은 한국인들이 다문화를 지지하는 인식의 전환을 보였다.

한국이 다문화를 품는 사회로 달라진 것은 2005년 한국 여성 1인당 출산율이 1.08명으로 급락하고, 농촌 총각들이 중국, 베트남 등 외국인 여성들을 배우자로 맞이하는 현상이 급증한 것이 계기였다. 그러나 다문화 아이들에 대한 왕따, 외국인인 혼혈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공공연히 이뤄지는 등 다문화의 어두운 그늘도 깊어졌다. (7면으로 계속)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55. 송흥국(1902-1995)

송흥국은 1902년 1월 7일에 황해도 연백군 은천면에서 송재규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배재학당을 다니던 중 삼일만세운동에 참여하여 평양감옥에서 옥고를 치렀고, 협성신학교를 졸업한 1926년에 평양 남산현 교회에 부임하여 1년간 섬겼다. 그 후 연희전문학교 문과에 입학하였는데 1928년에 YMCA 일요강좌에서 '인생과 고통'을 강연하기도 하였다. 연전을 졸업하던 1930년에 그는 이화여전 겸임교수로 재직했다.

퍼시픽 신학교

송흥국은 1931년 8월 26일에 아사마 마루 선편으로 입항하여 거주 버클리에 있는 퍼시픽 신학교에 입학했다. 서울 연락처가 앨머 M. 케이틀 선교사였던 점에서 그의 추천으로 유학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1933년 6월에 퍼시픽 신학교를 졸업하고 문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보스턴 신학교로 가려던 계획을 접고 퍼시픽 신학교에서 계속 공부하여 1935년 5월에 그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영예의 신학사(교역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 날 졸업생은 30여 명으로 한인은 오직 송흥국 하나 뿐이었다.

오클랜드 한인감리교회

유학생 송흥국은 특별 행사에서 노래를 불렀다. 1932년 6월 30일 저녁 8시에 있었던 기독교 조선 감리교회 총리사 양주삼 목사에 대한 환영 및 전별회에서 독창 참가 순서를 맡았는가 하면, 1933년 5월 어머니날에 오클랜드 교회 주최로 상향 교우까지 합동하여 주일날 오클랜드 공원에서 드린 야외예배에서 임정구 목사의 성경낭독이 있고 난 뒤 독창 순서에서 창가를 불렀다.

'신한민보'는 경제공황이 이날 하루에는 없는 것 같았다고 평했다. 돼지 다리와 닭

의 산적과 떡과 목이며 온갖 음식이 풍성하여 모든 사람이 어머니의 은덕을 생각하면서 함포고복을 하였다니 송흥국이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을 그리워했을 것이다. 송흥국은 1934년에 전도사로 오클랜드 한인감리교회에서 사역한다. 그러나 유학생이었으므로 교회를 섬기는데 시간적인

외에 노신태와 장기형도 있었다. 이 해 평균 출석 교인은 새크라멘토 한인감리교회와 합쳐서 74명이었다.

그해 7월 21일 주일에 상향한인감리교회는 귀국을 준비하는 송흥국을 초빙하여 예배를 드렸다. 그는 '선택감과 신앙생활'이라는 제하로 설교를 하였는데 교인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 이 설교가 미국에서 그의 마지막 설교다.

그런데 1936년 10월 1일 자 신한민보에



송흥국 목사

1931년 도미 퍼시픽신학교 입학 교역학석사학위 받고 1935년 귀국 미국거주 중 '삼일정신' 강연 및 노래 작사, 구제 등 나라사랑 앞장 평북 회천교회, 정릉감리교회 등 사역, 4권 저서 집필로 신학 정리

제한이 있었을 것이다. 당시 교역자로는 임정구 목사, 평신도 대표 김은해, 전도사로 노신태와 장기형도 있었다. 그해 평균 교인출석은 새크라멘토 한인감리교회와 합쳐서 67명이었다.

그해 12월 성탄축하예배에는 그의 순서가 여러 번 반복된다. 제 1부로 간단한 예배를 드렸는데 임케트린의 피아노 독주에 이어 송흥국의 인도로 찬송 47장을 찬미하였고, 노신태의 기도, 헨리 아담스의 독창, 장기형의 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1절까지 낭독, 연보와 광고가 있었다. 그리고 독창 크리스타우 후 다시 송흥국의 인도로 일동 49장을 찬미하였고, 김재훈의 경축사에 이어 송흥국은 김재해와 더불어 기도순서를 맡았으며 아담스 부인의 감상담으로 제1부 예배를 마쳤다.

2부에서 송흥국은 권일중과 장기형과 김재훈과 더불어 4부 합창순서에 참여했고, 독창 순서도 소화했다.

1935년에도 송흥국은 오클랜드 한인감리교회 전도사로 사역한다. 그러나 그해 귀국하였으므로 몇 달에 불과했을 것이다. 지난해와 같이 담임목사는 임정구 목사, 평신도 대표는 김은해, 전도사로 송흥국

는 1936년 9월 24일 하오 7시 30분에 상향 한인감리교회에서 모인 한인감리교회 지방회는 오클랜드 지방 전도사로 노신태와 장기형과 함께 송흥국을 신청하였는데 오기가 아닌가 싶다.

민족사랑

송흥국은 민족 사랑에 있어서 특별했다. 도미한 이듬해 국민회 상향지방회 기념식이 상향의 상향한인예배당에서 있었는데 송흥국은 '인도 성웅 간디씨의 희생적 정신을 본받자'라는 제하의 의미심장한 감상담을 전했다. 그해 그는 한인학생회 회장이었다.

1933년 3월 1일 독립선언 제14회 기념식이 거행되었을 때 송흥국은 '삼일정신'에 대해서 강연했다. 그는 이 강연에서 민족정신의 자각이 우리의 일대 희망이고, 이 희망에 완전히 성공하려면 우리 2천만 각자가 인격상 자유 독립이 있고 난 뒤에야 국가의 자유 독립을 얻을 것이므로 우리는 먼저 인격상에 결핍될 되는 부패한 습관과 이기심을 버리고 공동목표를 위하여 서로 힘을 뿐만 아니라 양해심과 용서

심이 많이 있어야 3·1정신을 성공할 날이 속히 있으리라고 역설했다.

이듬해 3월에 국민회 오클랜드 지방회가 개최한 삼일절 기념식에서도 그는 1사전부터 준비한 '삼일정신'에 대하여 연설했다.

1935년 2월 오클랜드 지방회장 김은해의 사회로 국민회 창립 제26주년 기념식이 있었는데 송흥국이 창가를 불렀고, 그달 28일 신한민보는 그가 작사한 '삼일 노래'를 소개했다. J. S. 매튜스의 곡에 백매리가 불렀는데 아래의 송흥국의 노래글에는 그의 민족 사랑이 한껏 묻어나온다.

- (1) 정의의 깃발 드높이 날리매 하늘이 베푸신 참 자유 찾으려
- 이천만 붉은 맘 한 뭉치 이뤄진 삼월 일일 만만세
- 만세 만세 영원토록 삼일정신 빛나거라
- (후렴) 만세 만세 영원토록 삼일정신 빛나거라
- 정의의 길 걷는 우리
-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네
- (2) 원수가 네 목숨 칼날로 끊어도
- 이천만 용사가 두려워 말아라
- 마지막 피 방울 다 흘릴 때까지

그해 3월 21일 저녁 8시에 국민회 신임 총회장 최진하의 취임식이 있었다. 애국가 1절과 2절로 개회한 얼마 후 송흥국이 작사한 아래와 같은 전승가 독창이 있었다. 애국자의 모습을 그린 그의 마음을 읽게 된다.

- (1) 임동 설한 지나 버리고 새 봄은 뜬에 왔는데
- 깊어 정든 우리 선생님 떠나려 떠나려 합니까
- 잘 가시오 정든 선생 몸 비록 서로 떠나 있어도
- 맺어진 정 영원토록 맘 깊이 간직하세
- (2) 젊은 평생 귀중한 10년 선생은 민족위해서
- 힘과 시간 아깝이 없이 바쳐서 바쳐서 일했네.
- (3) 선생 비록 이 곳을 떠나 몸 비록 갈려 있어도
- 선생 끼친 감화와 공로 영원히 영원히 있겠네.

신한민보는 '버클리에서 신학을 필한 송흥국씨가 청아한 전별곡을 부르니 비록 몸은 간사스러울지라도 정신은 떠나지 아니 하겠다는 소란한 마음을 더욱 일층 더 번 거로이 여기었다'고 평했다.

그는 가난한 유학생의 신분에도 기부로 인색하지 않았다. 삼일절 기념금 50전, 멕시코 탐피코와 큐바 칼데라에 거주하는 동포의 풍제와 수제를 당한 목구 동포 수재 구제 기금 25전, 동래 실수학교를 위한 의연금 50전 등을 흔쾌히 기부했다.

귀국 후

송흥국은 1935년 9월 29일에 나성한인장로교회에서 김치선과 정일형과 더불어 목사 환영회 및 전별회에 참석한 후 10월 28일에 귀국했다. 그는 평북 회천교회 목사와 성경학교 교사로 활동했고, 1941년 이후 서울 삼청동교회를 섬길 때 일본식 기독교단에 항거하다가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1959년에 송흥국은 열악한 정릉감리교회에 부임하여 '교회를 만드신 분이 된다. 본 교회를 사임한 1965년부터 그는 감리교신학대학 전임강사 겸 사감으로 5년간 봉직했다. 그가 "기독교입문"을 필두로 "요한 웨슬레", "세계 종교" 그리고 "웨슬레 신학과 구원론" 등 4권의 도서를 출판하여 그의 기독교 신앙을 정리했다.

1972년에 은퇴 후 1980년 중반에 미국으로 이주한 그는 1995년 8월 14일 필라델피아에서 향년 94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damien.sohn@gmail.com



오클랜드한인감리교회

정의 위해 싸우세 싸워 이기세.

(6면에서 계속)

이를 방지할 경우 한국에서 언젠가 인종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됐다.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관련 기구를 대통령직속위원회로 격상했

다. 노무현정부에서 시작된 다문화 정책은 이명박정부로 이어졌으며 정부 예산은 2009년 9690만 달러(1090억원)에서 2012년 1억9750만 달러(2222억원)로 3년 만에 배로 뛰었다.

한국 언론도 열정적으로 다문화 주제를 다루기 시작하면서 2005-2006년에 쏟아진

관련 기사가 전년도에 비해 3배로 늘었다.

정부와 언론캠페인에 힘입어 다문화를 바라보는 한국인들의 인식은 크게 달라졌다. 2010년 조사 당시 한국인의 60% 이상이 다문화 사회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가 나이저리아 출신인 한현민(17)이 모델로 맹활약하고, 캐나다 출신 아버지를 둔 가수 전소미(17)가 아이돌로 인기를 누리는 것은 한국이 다문화에 너그러운 사회로 급격히 달라진 증거라고 FP는 보도했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2006년 53만6627명에서 2016년 200만 명 이상으로 10년 만에 4배 이상 급증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2020년 신생아 3명 중 한 명은 한국인과 다른 아시아인 사이에서 태어나는 다문화 아이가 될 것이라고 FP는 전망했다.



교회 이동 디스플레이 및 디자인 전문

카라반캐노피는 대형프린팅 분야에서 18년의 전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안 수정, 로고 제작, 한글 캘리그래피 디자인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며 고성능 프린트 작업으로 최고의 만족도를 약속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모든 디스플레이 제작, 맞춤형 서비스

- ✓ 현수막 | 천막
- ✓ 접이식 배너 | 디스플레이
- ✓ 프로모션 상품
- ✓ 디자인서비스

VINYL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2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50** Plus tax if applicable

MESH/POLY FABRIC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3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70** Plus tax if applicable



1460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 T. 877.922.6679 | 한국어. 714.367.3046 | www.caravancanopy.com

리더십 코멘터리 (69)



손동원 박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리더십학자)

GOOD MORNING 리더여, 희망을 사서라

고맙다, 희망아 오늘도 나와 함께 하자

GOOD MORNING! 좋은 아침을 맞이했는가?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크게 "고맙다. 희망아, 오늘도 나와 함께 하자"라고 외치며 스스로에게 GOOD MORNING을 다짐해보자. 오래전 학교 다닐 때 "애야, 아무리 바빠도 아침(breakfast)만은 꼭 챙겨먹어라"라고 말씀하시던 어머니의 부탁이 생각난다. 아침밥(breakfast)을 꾸준히 먹으면 뇌와 신체활동 모두가 원활해지기 때문에 하루를 보다 활기차게 보낼 수 있다. 그런데 하루가 문제가 아니라 평생을 활기차게 살려면 아침밥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꼭 챙겨먹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희망(HOPE)이다.

인생에서 희망 없는 삶이란 얼마나 힘들고, 비참한가? 희망은 매일 아침 빼먹지 말고 복용해야 할 인생의 필수영양제이다. 희망은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일 때에도 "그래도 다시 한번" 오뎅이처럼 그 자리에서 별책 일어 설 수 있게 하는 마음의 보약이다.

리더는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

이탈리아가 낳은 세계적인 문호 단테(Dante)는 자신의 작품 속에서 지옥을 이렇게 묘사한 적이 있다. "지옥의 입구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 여기 들어오는 자는 모두 모든 희망을 버려라." 다시 말하면 희망이 없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꿈이 없다는 것이다. 희망이 사라지면 미래가 장밋빛이 아닌 흙빛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희망이 존재한다면 힘들고 지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세상을 살아 가야 할 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실패를 성공으로 이끌고, 낙담을 강함으로 탄생시키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이 솟게 해주는 것은 다름 아닌 희망이다.

'적과 흑(Le Rouge et le Noir)'을 저술한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인 스탕달(Stendhal)은 이렇게 희망을 노래한다. "사람은 40일을 먹지

리더는 역경 지수가 높은 사람

세계적인 발명가인 에디슨이 백열등의 필라멘트를 발명할 때의 스토리이다. 어느 날 그의 조수가 "선생님, 필라멘트를 발명하려고 벌써 90가지 이상의 재료로 실험을 해 보았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제 필라멘트를 발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생각되니 중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말했다. 그러나 에디슨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자네, 무슨 소리아. 그것을 왜 실패로 생각하나. 우리는 실패한 것이 아니고, 안 되는 재료가 무엇인가를 90가지나 알아낸 아주 성공적인 실험을 한 거야." 이런 생각과 끈기로 에디슨이 실험하다가 버린 쓰레기 더미가 무려 2층 건물의 높이 만큼이었으며, 연구를 시작한 지 13일째 되는 날 2,399번의 실패를 거쳐 2,400번 만에 드디어 전구를 통해 타지 않고 빛을 내는 필라멘트를 만드는 데 성공한 것이다.

에디슨은 이렇게 말한다. "누구에게나 2,400번의 평범한 기회는

물러서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꿈과 소망을 이룰 때까지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전진해 나가는 리더가 되라.

리더는 확고한 믿음으로 삶의 고통을 극복한 사람

누구나 한번쯤은 산에 올라가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등산을 하면서 정상을 정복하기 위해 나가는 길은 그리 험하지 않다. 숨이 턱턱 차오르는 험겨움과 가파르고 위험한 산길을 오르는 고통이 몇 번이나 주저앉고 싶어 하게 만들고, '이제 그만 갈까?' 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 그래서 끝내 정상을 정복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정상을 오르려 하는 의지와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끝내 정상을 정복한다. 그들에게는 중간의 어떤 어려움과 고통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리더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서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소망을 바라보며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서의 삶은 고통의 연속 보호하시는 하나님 손안에 영원히 있다는 확고한 믿음 필요

하는 사람

모든 위대한 일은 작은 시작에서 출발한다. 소수의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일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낸다. 그래서 실패한 사람들이 엄두도 내지 못하던 큰일을 이루어 낸다. 리더여, 오늘도 작은 시작으로 새 출발하자. 같은 물을 마셔도 독사는 독을 품고, 젓소는 우유를 제공한다.

부정과 실패로 얼룩진 내 마음을 복음으로 채우면 옛 습관은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간다. 믿음으로 은혜를 받으면 내 속에 있는 옛 습관이 없어진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 속에 한두 가지 소원이 있기에 마련이다. 그 소원을 마음에 품으면 꿈이 되지만 그 바람을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아뢰면 기도가 된다. 크리스천들의 진정한 기도는 영적 호흡의 관계성에서 찾을 수 있다. 호흡은 빨는 것이 먼저이고 들이마시는 것이 나중이다. 그것은 내게 있는 어두움의 일을 뱉어내고 절대자의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요즈음은 너도나도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비취는 이 찬란한 아침에 포기하고 절망하기보다 믿음 안에서 희망을 마시고, 마음과 생각을 복음으로 가득 채우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자.

있다." 오늘날 밝은 세상은 바로 에디슨의 평범한 기회를 비범한 성공으로 만든 포기하지 않은 노력에 기인한 것이다. 그에게 2,399번의 실패는 단 1번의 성공을 위한 기회였다.

요즘 어떤 일로 좌절의 벽에 부딪치고 있는가? 어떤 실패를 경험했는가? 당신이 비록 여러 번 실패했어도, 아직 실패자가 된 것은 아니다. 실패란 아직 성공에 이르지 않은 단계에 불과한 것이다. 사실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성공을 포기하는 것이 문제이다. 그러므로 리더는 어떤 좌절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역경을 극복하는 역경 지수가 매우 높다. 사람들이 역경에 부딪칠 때 세 가지로 반응한다. 첫째는 포기형이다. 힘든 문제에 부딪치면 그냥 포기하고 도망가 버리는 사람이다. 둘째는 안주형이다. 역경 앞에서 포기하거나 도망가지는 않지만, 그냥 현실의 자리에 주저앉아 현상 유지나 하는 안주형의 사람이다. 이런 안주형의 사람들이 60-70%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셋째는 정복형이다. 산을 만나면 모든 힘을 다해서 기어 올라가 정복하는 사람이다.

리더는 역경 지수가 높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인생의 어떤 험난한 장벽이나 좌절 앞에서도 결코 뒤로

나아가는 자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참 기쁨을 얻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고난 중에 쓰러져 소망을 버리고 믿음의 길에서 돌아선 사람들은 결코 그 나라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다.

인생을 살다보면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나 나를 버리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은 분명하지, 의심하고 낙심할 때가 종종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며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 하나님의 보호는 항상 변함없이 있고 조금도 빈틈이 없으며 영원하다.

아무리 악한 세력이 우리를 괴롭히고 극심한 고난으로 힘들게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보호에서 우리를 끊어놓지 못하며 우리의 생명을 해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그 고난은 잠시 잠깐이면 지나갈 것이요 하나님의 보호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이 없는 완전한 것임을 분명히 믿고 의지해야 한다.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는 확고한 믿음이 고난 중에 처한 리더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믿음인 것이다.

sondongwon@gmail.com

영성칼럼



이희녕 사모
(프린스턴한인교회)

권력이란 맹 중독

누가 과연 주인인가? 조금이라도 권력이라는 것의 맛을 보면 그것을 손안에 확실히 쥐기 위해 목숨을 건다. 솔로몬이 제법 토포해 요셉족속의 역군들의 감독으로 예로보암을 세워준다. 솔로몬의 부패로 인해 아히야가 예로보암에게 이스라엘 10지파를 그에게 주겠다고 말한 예언을 가슴에 품고 이루어짐을 오랜 세월 이집트로 피해 다니다 경험한다.

왕을 만들어주신 이유가 그 자리에 올려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며 하나님과 더불어 공의와 지혜대로 백성을 다스리는 공복이 되라는 거룩한 부름이었다. 그러나 저 역시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채워주는 소원기계에 불과했다. 일단 왕이 되니 그 왕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아무리 썩어도 하나님 중심이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에게서 힘껏 떼어 놓는 방법을 택한다.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의의 길로 인도해도 늘 달아나는데 울림 픽 선수급인 이스라엘백성들이다. 그런데 아예 금송아지 돌을 만들어 섬길 이를 제사장을 하고 싶은 자는 아무나 세우고 여호와의 진실로 예배하고 제대로 섬기려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폐함으로써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려는 자들을 유다로 몰아냄으로 인하여 오고 오는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바른 길로 가게 할 하나님을 믿는 시스템을 완전히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 제거한 셈이다.

그러니 북방 왕국의 왕들을 보면 39명 중에 하나님을 섬기고 따른 자가 어느 한 사람도 없었음을 주목하여 볼 수 있다. 거의 왕이 바뀔 때마다 통례로 "...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라는 말이 따라온다.

그를 막아 보시려는 하나님의 필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변열로 가 우상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며 우상 제사장들의 비참한 말로를 예고하니, 저를 잡으려다 손이 말라지니... 고쳐 달라 애걸해 고쳐주어도 그때뿐 결코 고집을 꺾지 않은 채로 죽기로 자신의 왕위를 자신의 방법으로 스스로 지키려 죽기로 르호보암과 전쟁하며 안간 힘을 써보다가 예언대로 아들 나담 때 결국은 말씀대로 바사사가 반역해 온 집안의 씨가 말랐다(왕상15:28-30).

여로보암의 근본 문제는 무엇인가? 그의 삶 중에 하나님의 위치이다. 그에게 하나님은 그가 만들어 세운 금송아지만도 못하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고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왕이심을 알면서도 힘써 받는 은혜만을 좋아하고 그의 다스림을 받고 싶지는 않다.

하나님과 더불어 삶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라면 그의 마음의 어느 한 구석에 눈썹만으로도 없다. 제 손에서 빠져 나갈까봐 그러도 무서워 모든 악행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데, 권력이 그리도 좋은 것일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 나라의 절대 명령 중심인 왕의 자리에 앉으면 그 권력을 자기 것으로 강력히 행사하고자 얼마나 왕 자리를 둘러싼 피비린내 나는 암투를 하는지?

시공을 넘어 서로가 의논한 것도 마음들을 나눠본 것도 아니건만 어쩌면 힘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권력과 금력을 손에 쥐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우상 숭배의 실상이다.

우상 숭배로 마음이 조금이라도 맛이 들면 결코 저항할 수 없는 독약을 먹은 듯 우상 숭배의 파위에 가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여로보암이 자기에게 온 파위를 자기 손으로 지키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했는데 그 중에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 있는 권력구조를 흩어 놓으면 자기 자신이 권력을 문제없이 유지하리라 계산하였다.

문제는 그 대상이 살아 계시어 세상을 주관하는 왕이신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제 소원이나 이뤄주는 종으로 착각한 것이 그의 복을 저주로 바꾼 잘못된 믿음이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나는 제외되는가? 달면 삼키고 쓰면 돌아서 내어 버리고 배은망덕 파렴치한 우상 숭배의 죄에서 나는 과연 완전히 안전한 것인가? 진정으로 주님의 사람인가? 믿음 좋은 자는 욕망의 노예인가? 나는 진실로 누구의 사람인가? 웃기를 여미고 중심을 가다듬어 본다.

heenlee55@hanmail.ne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영어판, 중국어판 책도 판매합니다



강사: 라흥재 목사



도서 주문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목회서신

성경적 자살관과 오해



이재근 목사 (주사랑선교교회 담임)

자살을 세계 1위가 한국이라는 것은 너무나 큰 충격적이고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이러한 죽음, 곧 자살에 대해 세상의 눈길은 곱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차가운 눈길마저도 2달도 안 되어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었고, 또 어떻게 그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지 못했는지, 그런 말은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잘못을 논하기 전에 먼저 접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은 (1)자살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자살에 대해 명확한 대답을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이 말하는 원리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2)자살에 대해 어떤 오해를 하고 있으며, 그런 오해를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에는 자살의 사례들만 열거될 뿐, 자살을 심판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아벨레(삿9:54), 삼손(삿16:28-31),

사울(삼상31:1-6), 사울의 병기 가진 자(대상10:5), 아히도벨(삼하17:23), 시므리(왕상16:18), 유다(마27:3-5) 등 총 7명의 자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성경이 이들의 행위를 소개할 뿐, 그 행위에 대한 어떤 판단도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자살을 살인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자살이란 살해의 대상을 자기 자신으로 삼았을 뿐, 명백한 살인행위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살인에 대한 율법적 판단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굳이 자살을 따로 구분해서 언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관상 성경은 마치 자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단지 성경에 언급된 자살자에 대한 판단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판단에 맡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자살을 도덕적 책임(잘못)으로 격하시킴으로, 자살의 심각성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2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자살이 무엇인지 그 정확한 실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살은 특정 집단, 연령의 행동유형도, 우울한 사람의 선택도, 충동적 행위도, 비신앙인의 행위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살은 누구나, 우울에서 벗어난 시기에도, 계획적으로 신앙인들도 할 수 있는 보편적 행위입니다. 자살은 살인행위이며, 살인행위는 인간의 환경이 아니라, 인간의 죄성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2)자살행위에 대한 정죄가 불분명하므로, 그 책임관계 또한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자살은 살인행위이며, 그 행위 자체에 대한 책임은 분명 자살한 사람 자신에게 100%입니다. 그리고 이 행위는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상담자인 놀란 라이트는 자살에 대한 오해를 8가지로 정리했습니다.

- 1. 자살과 자살 미수는 같은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살은 정말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시도하는 것인 반면, 자살미수(죽지 않을 만큼 자살을 시도하는 행위)는 살려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주세요!"라는 절박한 도움을 요청하므로, 자살과 자살 미수는 같이 아니합니다.

2. 자살은 특별한 계층 사람들의 문제이다.

자살은 사회 경제적 지위, 인종, 연령과 무관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자살 기도는 대부분 관심을 끌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자살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살하지 않는다.

자살한 사람 중 약80%는 행동에 옮기기 전, 누군가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립니다. 이 고백의 의미는 도움을 호소하는 울부짖음으로, 이 말을 들은 사람은 그 고백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런 고백은 무시를 당합니다.

4. 한번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은 영원히 그럴 것이다.

상담과 치유사역을 통해 자살시도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5. 자살은 유전적이며 집안 내력이다.

자살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선례는 환경적인 영향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6. 기독교인은 자살하지 않는다.

신앙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심리적, 감정적, 뒤틀림을 경험하며, 누구나 자살의 위협을 받습니다.

7. 자살과 우울은 동의어다.

우울이 자살할 생각의 표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살 가능성에 대해 유의

해야 합니다.

8. 자살 위기 이후 상태가 호전됐다면, 자살 위험은 끝난 것이다.

상태가 호전됐다면 자살 위험은 완화되었지만 끝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태가 악화된다면 언제든지 재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늙어서 죽거나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로 어쩔 수 없이 떠나는 죽음이 아닌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자살은 인간이 범할 수 있는 죄악 중 최고의 악행입니다. 부모님이 주신 고귀한 생명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자살행위는 부모님이 살아계시든, 혹은 돌아가셨든, 관계없이 부모에게 행할 수 있는 최악의 불효이고, 형제자매가 있다면, 그들에 대한 더 할 수 없는 폭행이며, 만약 자식이 있다면, 자식에게 죽을 때까지 충격과 고통을 안겨주는 인간 악행의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살처럼 비겁한 행위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정서 속에는 고인이 된 자살자에게 관대한 감정을 지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실연의 아픔, 극심한 생활고, 기나긴 병고, 배우자의 악행, 채무불이행, 이런저런 실망 때문에 '그냥 죽어버릴까?'라는 못된 생각이 들더라도 절대로 자살만큼은 해선 안됩니다. 자살하고 나면 모든 것이 끝장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영원한 지옥행방을 면할 수 없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없고, 영원히 고통 가운데 슬퍼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레이스미션대 교차문화 Ph.D 인가취득

TRACS... 선교사 지도력 개발, 현장 교육선교 큰 도움

그레이스미션대학교(Grace Mission University, 총장 최규남 박사, 이하 GMU)가 한인신학교 최초로 미국기독교학교협회(TrACS)로부터 교차문화 철학박사(Ph.D. in ICS) 인가를 취득했다. 이를 위한 기자회견이 19일 오후 2시 본교 도서관 컨퍼런스룸에서 열렸다.

본교 박사위원장인 이병구 박사는 "GMU박사원은 북미주 한인신학 최초로 ATS에서 선교학박사과정(D.Miss)을 인가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학문과 선교현장을 중심으로 하는 수준 있는 박사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현재 40여명의 디아스포라 목회자들과 한인 세계선교사들이 지도력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병구 박사는 "지난 13일 TRACS로부터 교차문화 철학박사(Ph.D in ICS) 인가를 취득 받았다"며 "Ph.D in ICS 취득은 북미주 한인신학교로는 최초이며 이로 인해 27,500여명의 한인 세계선교사들의 지도력 개발과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교육선교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규남 총장은 "교차문화가 급속도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선교지도 다문화 환경으로 변하고 있다"며 "디아스포라 목회하시는 목회자들과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의 지도력 개발과 건강한 목회현장과 선교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이 과정을 개설했다. 철저한 학사 관리와 영성관리, 그리고 수준 있는 강의로



그레이스미션대가 TRACS로부터 교차문화 철학박사 인가취득을 받았다. 이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총장 및 교수진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Ph.D 명성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GMU Ph.D in ICS 프로그램은 선교적 교회운동을 하고 있는 이상훈 박사(전 풀러신학교 교수, 소마대학교)가 지난 7월 1일부터 본 프로그램 디렉터로 부임했으며 오는 8월 1일부터 Ph.D in ICS과정이 시작된다.

교수진으로는 김민태 박사, 이승일 박사(바울선교회), 조영성 박사(KWMA), 주정웅 박사(우크라이나선교사), 조용성 박사(GMS), 박기호 박사(풀러신학교), 이광길 박사(소마대학교), 임종표 박사 등이며 현장과 학문이 겸비돼 있는 타 신학교 영어권 교수들도 강사로 참여하게 된다.

학점은 총 58학점(과목당 4학점)이며, 12과목(그중 6-8과목은 Ph.D in ICS와 D.Miss 공통필수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코스웍은 48학점, 종합시험 2학점, 그리고 논문 8학

점으로 구성돼 있다.

GMU의 모든 학위는 미국 연방 정부 교육부(US Dept. of Education)가 인정하는 학위다. 본교는 북미신학대학원협의회(ATS), 미국기독교학교협회(TrACS), 그리고 성경고등교육협의회(ABHE), 대학교육인가심의회(CHEA), 가주교육국(BPPE)으로부터 인가를 받았으며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GMU는 학사과정(BA)과 다문화 석사과정(MA.ICS), 기독교교육 석사과정(MACE), 목회학 석사과정(M.Div)을 제공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수업은 물론 온라인 수업도 진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장학혜택도 주어진다.

문의: (714)525-0088, admissions@gm.edu

(박준호 기자)



제3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 수상자 시상식을 마치고 기념촬영

제 4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주최... 마감 10월 31일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회장 임승패 장로)가 주최하고 기독교서정협회(회장 전인철 목사)가 후원하는 제 4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이 시작됐다.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4

년째 이어지고 있는 본 공모전 추천도서로 '은혜 받는 습관'(데이비드마티스/생명의말씀사), '어머니 또 부르고 싶은 어머니'(류태영 외 8명/한국문서출판), '아멘 그다음에 중요하다'(한홍/규장), '살피심'(김영재/두란노), '페이퍼'(하형록/청림)가 선정됐다.



2018 캘리포니아 바이블 컨퍼런스가 아주사퍼시픽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영적부흥, 지역교회 연합도모, 참복음 회복...

2018 캘리포니아 바이블 컨퍼런스 성황

2018 캘리포니아 바이블 컨퍼런스가 아주사퍼시픽대학교(총장 존 윌레스 박사)에서 19일부터 21일까지 GMT(대표 캔안 선교사) 주관으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김한요 목사(베델 한인교회)가 '여호수아서와 여리고 성', 고승희 목사(아름다운교회)가 '호세아서', 민중기 목사(충현선교회)가 '야모스서의 연구', 이상명 박사(미주장신대학교)가 '갈라디아서', 박성근 목사(LA한인침례교회)가 '에베소서'를 강의했다.

'여호수아서와 여리고성'이란 주제로 강의한 김한요 목사는 "첫째, 땅은 약속으로 주어졌지만, 그 땅의 적들은 제거해야 하는 원칙이다. 우리에게 영원한 도성, 하나님 나라가 약속돼 있지만 천국을 맛보기 위해서는 원수를 제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의 교회는 안식의 언

약을 믿고 나가 담대히 싸우는 것"이라며 "요단강 도하 후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드디어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러 나아가듯 우리도 우리앞의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호세아서를 강인한 고승희 목사는 "호세아는 예레미야와 비교가 된다. 두 사람 다 죄악으로 멸망하는 이스라엘을 향하고 눈물로 외치고 있다. 그리고 호세아의 흐느낌은 구약의 겻세마네"라고 말했다. 민중기 목사는 '야모스서의 연구' 주제 강의를 '야모스서의 배경' 야모스서의 본문 속 여행 야모스서의 심층 묵상 주제라는 3부분으로 나눠 강의했다.

이상명 박사는 갈라디아서 강의에서 '갈라디아서 교회 회중에게 처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다른복음' 즉 율법의 행위로 인한 의를 선포했던

본 공모전 응시 대상은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이며 추천도서 중 권권을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면 된다.

독후감은 레터 용지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 마감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보내면 된다.

독후감을 보낼 때 응모자의 이름, 출석교회, 직분,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야 한다.

접수된 원고는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선출하고 각 1000달러, 500달러, 200달러가 상장과 함께 상금으로 전달된다.

또한 수상작품들은 협회소속 각 언론지에 게재되며, 에피포도 예술인협회(대표 백승철)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자세한 것은 wkcmmailbox@gmail.com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제7회 성경적 상담 컨퍼런스가 '우울증 극복을 위한 성경적 상담'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우울증 극복을 위한 성경적 상담

제 7회 성경적 상담 컨퍼런스 성료

제 7회 성경적 상담 컨퍼런스가 '우울증 극복을 위한 성경적 상담'이라는 주제로 15일부터 20일까지 캘리포니아 아트 유니버시티에서 진행된 컨퍼런스 성료

리포니아 아트 유니버시티에서 진행된 컨퍼런스 성료

(박준호 기자)

(박준호 기자)

동부교계 게시판



제 6차 다민족 선교대회

뉴욕장로연합회(회장 김영호 장로)가 주최하는 제 6차 다민족 선교 대회가 8월 12일(주) 오후 5시에 뉴욕교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에서 열린다.

박종호 나눔 콘서트

한국의 파바로티 박종호 나눔 콘서트가 8월 5일(주) 오후 2시 30분 뉴욕어린이교회(담임 박윤선 목사)에서 열린다.

주사랑장로교회 2018가정 부흥회

주사랑장로교회(담임 정준성 목사)가 8월 3일부터 사흘간 2018가정 부흥회를 갖는다.



뉴욕목회자기도회 7월 월례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하나님의 동역자...상 받기를 사모하라”

뉴욕목회자기도회 7월 월례기도회

뉴욕목회자기도회(회장 박이스라엘 목사)가 지난 20일 오전 10시 30분 빛과소금교회(담임 정순원 목사)에서 정기 월례기도회를 가졌다.

제목의 설교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계획하심에 동참하기 바란다”며 “뉴욕목회자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행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장총 동부지역연합회 창립총회 및 대표회장 취임감사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한장총동부지역 대표회장 박태규 목사

23일 창립총회 및 대표회장 취임감사예배

(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이하 한장총)가 미 서부지역에 이어 동부지역에 연합회를 창립하고 지난 23일 창립총회 및 대표회장 취임감사예배를 드렸다.

장 유중현 목사가 설립배경을 설명하고 박태규 대표회장 추대를 허락 통고시켰다. 박태규 목사는 동부지역 연합회의 정관심의 및 임원 추대 등은 임원회에 임입하기로 하고 지회 설립을 선포했다.

“순종이 기적을 낳고 축복의 열쇠 된다”

뉴욕어머니기도회 7월 모임 백기현 교수 초청

글로벌뉴욕여성목회자연합회(회장 권근주 목사)가 주최하는 뉴욕어머니기도회가 지난 18일 뉴욕기쁨과영광교회(담임 전희수 목사)에서 열렸다.

내 인생을 해결해달라고 간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실패 후 아내한테 미안한 마음으로 부흥집회에 참석해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하자하는 마음을 갖게 함으로 감사 등에서 치유함을 받고 성장가로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불쌍한 찬양이 성령으로 치유 받고 거듭남으로 찬양을 통해 창조주를 만날 수 있는 찬양 사역자로 쓰임 받게 됐다”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다.

뉴욕/뉴저지 장애인과 노숙인 후원

CBSN 주최 2018 세계찬양대합창제 발대식

뉴욕기독교방송(CBSN, 사장 문석진 목사)에 주최하는 2018 세계찬양대합창제 발대식이 19일 플러싱 급강산 연회장에서 열렸다.

목사가, 격려사는 장석진 목사가 했다. 3부 합심기도시간에는 양민석 목사 인도로 스카네기를 찬양대합창제의 성공적인 연주를 위해/이재봉 목사 스찬양대합창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랑 나눔을 실천하며 교회간의 화합과 일치가 되도록/문덕연 목사 스뉴욕기독교방송이 복음의 나팔수와 찬양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크게 감당하도록/전희수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2018 세계찬양대합창제 발대식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아름다운교회, 황인철 목사 사임반대

아름다운교회는 담임 황인철 목사가 2주전 사임을 표명한 가운데 7월 22일 PCUSA 동부남미노회 주관으로 임시공동의회를 열고 투표한 결과 사퇴반대를 표했다.

과 사임은 노회 주관이지만 목사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최종 결정은 황인철 목사에게 달려있음을 밝혔다. 황인철 목사가 사임 의사를 철회하면 그대로 목회가 지속되며, 사임의사를 고수하면 황 목사는 7월 29일 주일예배가 마지막 설교가 되고, 8월 노회에서 임시당회장 파송, 9월 노회 정기노회에서 법적 처리의 과정을 밟게 된다.



뉴욕어머니기도회 7월 모임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Large advertisement for '동부(NY, NJ) 교회' (East Church) featuring a grid of church listings with names, addresses,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a central banner for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Churches reaching the world).

'주님의 시선이 머문 그 곳에'

제 37회 남가주 찬양합창제 8팀 참가

남가주교회음악협회(회장 전현미)는 제 37회 남가주 찬양합창제를 '주님의 시선이 머문 그 곳에II'라는 주제로 22일 오후 6시 감사한

인교회(담임 구부주 목사)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전현미 회장은 "주님을 향한 찬양의 열정을 담아 제 37회 남가주

찬양합창제를 열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며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주님의 자녀로서 서로 격려와 축복으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전현미 회장 인사말로 시작된 찬양제는 남가주사랑의교회(지휘 이영진 목사), 베데스다 대학(지휘 랜

디김), 라구나힐스 연합감리교회(지휘 전현미), 하나로커뮤니티교회(지휘 서건), 감사한인교회(지휘 강민석), 생수의강선교회(지휘 안동주), 오렌지미션과이어(지휘 장진영), 선한목자교회(지휘 이창근) 등 8개 찬양팀이 참가했으며 제 4회 남가주 학생찬양경연대회 대상 수상자인 카운터 테터 신하민과 소프라노 신예희와 카이로스 싱어즈가 특송을 불렀다.

이날 합창제는 이창근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 전출연자들이 헌nel의 할렐루야를 합창한 뒤 이승준 목사(하나로커뮤니티교회)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교회음악협회가 주최한 제37회 남가주 찬양합창제에서 전출연자들이 연합으로 합창하고 있다



베데스다대학교 총동문회 총회에서 동문회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왼쪽 우측에서 두번째가 이날 총회에서 유임된 박정기 회장이다

"글로벌 시대적 부름에 부응"

베데스다대학교총동문회 박정기 회장 유임

베데스다대학교 총동문회(회장 박정기 목사)가 총회를 열고 박정기 목사를 회장으로 재임시켰다.

오직예수교회(담임 샘신 목사)에서 16일 오후 7시 열린 총회에서 박정기 목사와 윤종명 목사가 후보로 나왔으며 첫 번째 투표는 동수로 나와 재투표를 통해 박정기 목사가 동문회장으로 당선됐다.

박정기 회장은 "신학교로 출발했던 베데스다대학이 40여년의 세월을 지나는 동안 다인종 종합 대학으로 발전해왔다. 총 동문회 또한 글로벌한 시대적 부름에 부응하는 전기를 새로운 임기 내에 마련하고자 한다"며 "영어권, 중화권, 한국어권 등 세계로 뻗어나가는 베

데스다 대학이 되길 염원하며 다민족 동문들을 섬기며 나아가길 원한다. 더 나아가서 SNS와 on&off line 모두 동원해 네트워크를 재형성하고 더욱 더 밀어주고 끌어주는 베데스다 대학(원) 총동문회가 되길 소망한다. 모든 베데스다 졸업동문들이 각자가 감당하고 있는 사명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제자가 되길 응원한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총회가 열리기전 시작된 조요숙 목사 사회로 시작된 1부 예배는 박정기 목사가 설교했으며 최창수 목사가 축도했다.

(박준호 기자)



사모 블레싱 나잇 행사에서 참석한 사모님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위로와 격려의 장... 신은실 사모 간증

오렌지카운티교협 주최 제8회 사모 블레싱 나잇

제 8회 사모 블레싱 나잇이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이서 목사) 주최로 미주비전교회(담임 이서 목사)에서 17일 오후 6시에 개최됐다.

미주비전교회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박재만 목사(남가주순복음교회) 사회로 시작된 1부 개회예배는 이창남 목사(주님의 손길교회)가 기도했으며, 신은실 사모(OC한인교회 신용규 원로목사 부인)의 간증이 있었다.

신은실 사모는 "목사 딸로 자라서 교회에서 봉사는 열심히 했지만 24살 때 주님보혈로 깨끗하이 되는 체험하며 하나님 사랑이 어떤 건지 알게 됐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목사사모가 됐다"며 "새벽기도의 부담으로 사모의 길을 가는 것이 꺼려졌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우주 같은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겼다"고 말했다.

신 사모는 "모든 이들에게 긍휼함 주셔서 교인들이 사랑스러웠다. 직분에 상관없이 영적인 어린이처럼 보였다. 그래서 즐겁게 목회를 했던 거 같다"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면 남편의 사역을 함께 하는데 아무 문제없다"고 말했다.

간증에 이어 OCKMC(지휘 강미영)가 특송했으며 이소연 사모(OC교협 회계)가 성경봉독을 했다. 이날 이서 목사가 '언약의 자녀'(롬 9:1-8)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서 목사는 "하나님께 맡겨주신 성도들이 너무 귀하다. 성도를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감격이 된다. 우리들의 사역은 주님 때문에, 언약 때문에 주님 한분으로 충분하

다"며 "그리스도 안에 자유하자. 성경에 나오는 축복은 언약의 축복이다. 그 축복을 누리야 한다"고 말했다.

설교에 이어 OC교협 회원들이 후원하는 12개 미자립교회들에 격려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격려금은 지난 5월 CTS와 함께 가진 희망나눔콘서트에서 모금된 현금으로 전달됐다.

이날 격려금을 받은 미자립교회는 살아가는교회, 성공회디사이플즈교회, 은혜화선교회, 성령교회, 큰믿음교회, 온세대교회, 늘찬양교회, 주사랑교회, 푸른초장교회, 새영교회, 갈보리복된교회, 알테시아장로교회.

조한영 목사(큰빛감리교회 담임) 사회로 진행된 2부 저녁만찬에서는 OC한인목사회 회장 남상국 목사가 식사기도를 한 후 황규동 전도사가 색소폰을 연주했다.

후원이사장 김영수 장로(은혜한인교회)는 "목회자 사모들의 수고와 희생에 항상 감사드린다. 음식에서 말없이 목사님들을 보필하시는 사모님들의 노고에 고개가 절로 숙여진다"며 "오늘만이라도 맘껏 즐기는 사모님들이 다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엔터테인먼트는 서양훈 장로(은혜한인교회)가 선물증정은 한석호 목사(양문교회)가 각각 진행했다. 이후우 목사(좋은소식교회 담임)는 "위로와 격려의 장인 '사모 블레싱 나잇'을 축복한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날 행사는 샘 신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의 폐회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돈은 어떻게 다루나' 세미나

남가주주님의교회(담임 김낙인 목사)는 '돈은 어떻게 다루나' 세미나를 8월 5일(주) 오후 1시15분에 갖는다. 강사는 김선혜 목사(코너스톤 연합감리교회 담임).

▲문의: (626)965-9191

작은 교회 청년연합수련회

"미전도종족! 청년세대를 위한 작은 교회" 청년연합수련회가 8월 2일(목)부터 4일(토)까지 나성순복음금식기도원에서 열린다. 이번 수련회의 강사는 고창현 목사(토랜스제일장로교회), 레베카 황(한국 R45찬양팀 인도자), 밴용진 목사(갯스이미지 대표), 김섭리 목사(베델한인교회), 오윤태 목사(하일랜드 코너스톤교회 담임), 김도일 목사(블레싱콘서트PD), 종요석 전도사(데정필름 대표), 조영석 목사(OC제일장로교회)이며 참가비는 40달러다.

▲문의: 김혜지 간사 (213)347-5080

LA한인침례교회 명칭변경

LA한인침례교회(담임 박성근 목사)가 교회명칭을 남가주 새누리교회로 변경한다. 새누리교회 명칭은 23년전 초대 담임목사(고 김동명 목사)가 지었던 것으로 착한 양, 착한 목자의 정신이 담긴 이름이다. 한편 헌당예배는 오는 8월 5일(주) 오후 4시에 갖는다.

▲문의: (213)383-4982

라파산교회 침술강의 모집

한의학학을 통해 선교하는 라파산교회(대표 오덕상 장로) 침술강의가 8월 11일부터 10월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5-8시에 열린다. 강의 장소는 LA연합감리교회(담임 김효용 목사 1200 S Manhattan Pl, LA)이며 강의를 수료하게 되면 라파산교회의 국내외 의료선교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

▲문의: (213)377-4646

한반도 평화와 화해 포럼

풀러신학교(총장 마크 래버튼 박사)는 한반도 평화와 화해포럼을 31일(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본교 트레이비스 오디토리움에서 갖는다.

▲문의: (626)584-5574, 5252

월드미션대학교 입학설명회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 오렌지카운티 지역 입학설명회가 30일(월) 오전 10시 OC삼당대학원(7432 Orangethorpe Ave, Buena Park, CA)에서 실시된다.

▲문의: (657)529-1133

EM 하프타임 사역자 모집

새생명교회(담임 승광철 목사, 정용제 목사)는 EM 하프타임 사역자를 찾는다. 대상은 정규신학대학원 졸업(M.Div)자로 체류신분에 문제가 없는 자이며 이력서(사역활동 내용포함), 자기소개서(목회소명, 간증, 가족소개 포함), 신학대학원 재학 혹은 졸업증명서, 담임목사 추천서 외 2명의 추천서, 설교동영상 2편(영상파일/링크)을 7월 28일까지 이메일(jimskc@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661)618-9392

주일학교 사역자 모집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SF사랑의교회(담임 이성진 목사)는 주일학교 사역자를 모집한다. 자격요건은 △정규 신학교에 재학 혹은 졸업한 자 △영어/한국어 능통한 자 △주일학교 사역에 열정과 비전을 가진 자로 이력서(신대원 재학증명서 or 졸업증명서, 사진첨부), 자기소개서 및 신앙간증서, 추천서 1부, 설교영상 1편(6개월 이내)을 이메일(sf.sarang.office@gmail.com)로 오는 8월 15일까지 보내면 된다. 서류는 PDF로 첨부해야 한다.

▲문의: sf.sarang.office@gmail.com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190
	캐나다	\$110	남미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 _____ 목 사 <input type="checkbox"/> 영어 : _____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_____ 영어 _____
전화번호/Fax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20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한인가정상담소가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와 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가정폭력 40시간 전문가 교육과정'을 미주장신대에서 진행했다.

가정폭력 전문가 교육과정 11명 이수

한인가정상담소-미주장신대 협력 여름 특강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건강한 한인가정을 만들기 위해 힘을 모을 기독교 사역자 11명이 새롭게 탄생했다.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 정조)가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와 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1주일 동안 '가정폭력 40시간 전문가 교육과정(40 Hour Domestic Violence Advocate Training)'을 미주장신대(총장 이상명 박사)에서 진행했다.

이 교육과정은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미주장신대가 재학생을 위한 여름특강으로 개설했다.

이번 40시간의 교육과정에서는 △가정폭력 개요와 역사 △아동학대와 영향 △청소년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위한 안전 대책 및 평가 △이민법 및 기소법 등 법률적 지원 △피해자 상담과 리소스 등이 주된 내용으로 다뤄졌다.

수강생들은 폭력이라는 주제를 놓고 역사·심리·사회·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접근, 지식을 넓힐 수 있었다. 또한 실제로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는 한인가정상담소의 관련 부서 전문가들로부터 직접적인 피해 사례와 상담법, 지원 방법 등을 배우는 기회가 됐다는 평가다.

한인가정상담소 카니정조 소장은 "한인사회 특히 한인 기독교계에서 공론화하기 어려운 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특강 기회를 제공해주신 미주장신대에 감사하다"며 "한인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한인 교계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다양하게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미주장신대 이상명 총장은 "본교 재학생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분야 교육과정을 여름학기 특강으로 개설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특강을 통해 재학생들이 사역 현장에서 직면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고, 역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블루실드파운데이션(Blue Shield Foundation) 후원으로 진행됐다.

▲문의: (213)235-4848, (619)623-0909 이미리 홍보담당 (기사제공: 한인가정상담소)

기감, 감독회장선거 선거권자 선출 시작

내달 감독회장 선거무효 소송 판결이 변수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가 감독회장 선거를 위한 연회별 선거권자 선출에 나선다. 기감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기복)는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기감 총회에서 회의를 열고 산하 연회들에 감독회장 선거권자 선출을 요청했다. 회장은 이번 선거의 주제를 '올바른 선거 문화가 자랑스러운 감리교회의 시작입니다'로 정했다.

기감의 선거제도는 복잡하다. 우선 연회를 대표하는 감독 선거의 경우 목사 정회원들로 선거권자가 제한된다. 정회원은 목사 안수를 받은 뒤 11년이 지나야 자격을 얻는다. 기감은 전국에 4000여명의 목사 정회원이 있다.

감독회장 선거를 위한 선거권자는 목사 정회원에 동수의 평신도

대표들을 더해 구성한다. 이번에 기감 선관위가 연회에 요청한 것은 평신도 선거권자들을 확정해 달라는 것이었다. 감독회장 선거권자는 정회원 수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매년 유동적이다. 보통 9000명을 상회한다.

기감은 연회 감독 선거 일정을 오는 10월 2일로 정한 상태다. 하지만 전명구 감독회장이 소송에 휘말리면서 감독과 감독회장 선거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선관위는 전명구 감독회장에 대한 선거무효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감독회장 선거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다음 달 중 감독회장 선거무효 소송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경우 10월 2일

연회 감독 선거 때 감독회장 선거도 함께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감독과 감독회장 동시 선거에 대한 기감 내부의 반응은 엇갈린다. 한 목회자는 "전명구 감독회장을 둘러싼 소송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전 목사가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한 감독회장 선거가 진행되긴 쉽지 않다"고 예상했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9일 기감 교단지 '기독교타임즈' 기자들에 대한 직위해제 및 해고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신동명 편집국장 대행과 김목화 기자가 지난 20일 복직했다.

다.

미래목회포럼은 "성평등은 성소수자 개념이 포함돼 있어 양성평등과 의미가 다르다"며 "성평등 표현이 담긴 NAP가 통과되면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목회포럼은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봉준 대표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외국인으로 향유할 수 있는나라의 문제는 사회 통합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논의될 수 있다"면서 "정부가 난민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 의사들이 제출한 것으로, 의사에게 치료를 100% 위임할 필요까진 없다"면서 "응급환자가 수혈을 받았다고 해서 생존할 것이라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러 "전혈과 성분수혈 등 1차 수혈은 절대 안 되지만 면역 단백질 등 혈액의 2차 성분을 빼내서 하는 수혈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그건 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영준(법무법인 지스투스) 변호사는 "응급상황에서 자녀에 대한 수혈을 거부하는 것은 친권남용 행위로 종교의 자유와 생명권을 혼동한 것"이라며 "왜곡된 교리로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사리분별을 못하는 어린 생명까지 위협했다면 그들이 그토록 엄하게 금하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여호와의증인 관계자는 또 대학교육 거부와 이탈 신도에 대한 대화단절에 대해서도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학업중단은 어디까지나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면서 "이탈 신도에 대한 가족의 도리는 지키되 여호와의증인으로서는 이야기하지 않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미선라이프)

로 보인다.

재편 작업을 총괄한 KPM 정규호 연구지원원은 "개별 선교사 중심의 각개전투 사역이 지역선교부 중심의 팀 사역으로 확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지역 한계를 초월한 팀 사역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복무기간 2배·영내 합숙”

기독 변호사들·바른군인권연구소 대체복무 기준안 제시

기독 변호사들과 바른군인권연구소 등 시민단체가 병역의무와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 초안을 내놨다. 이 기준에 따라 법안이 제출된다면 군부대 내 합숙을 원칙으로 하는 최초의 대체복무제 관련 법안이 될 전망이다.

국민일보가 18일 입수한 '병역법 개정'을 위한 계획 기고안에 따르면 대체복무 기간은 육군(2년)의 2배 이상이며 군부대 내에서 합숙하는 게 원칙이다. 복무 분야는 지뢰제거 작업 등 평시 민간인출입통제구역 일대의 평화적 활동, 군 및 보훈병원의 간병활동, 한국전쟁 전사자 유

막막한 ‘N포세대’ 크리스천 20대 3인의 고단한 일상과 소망

‘N포세대’ 취업과 연애, 여가 등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이른바 N포세대의 용어는 청년들을 짓누르는 무력감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이 신조어는 쓰인 지 수년이 지나 일상적 용어가 됐다. 청년들이 포기하는 것들은 연애 결혼 출산 등에서 출발해 희망과 삶까지 확산돼 안타까운 실정이다.

최근 서울 성북구 월곡로 성북중앙교회(김성운 목사) 청년부인 ‘신실인 청년위원회’는 20-30대 청년 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의 주제는 ‘청년의 아픔을 치유하는 교회’이다.

조사에 따르면 청년 중 57%는 과외 및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하고 있다. 주거형태로는 절반 이상인 55%가 자취 및 하숙을 하고 있다. 수입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 응답자 중 23%는 수입의 40% 이상, 17%는 20% 이상이라고 밝혔다. 40% 이상의 청년들이 수입의 2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것이다.

부채는 학자금(43%)과 생활비(34%) 주거비(14%) 순으로 나왔

다. 신입생 때부터 카페와 식당 등에서 수많은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는 “카페에선 많은 음료의 조리법을 의뢰야 하기 때문에 차라리 식당에서 주방보조를 하는 게 쉽다”고 했다. 주 3회 4시간씩 식당에서 일하면 한 달에 40만원을 손에 쥘다.

가장 큰 문제는 시험기간에도 일해야 한다는 것. 박씨는 “시험기간에 일하고 공부하면 너무 피곤해 공부가 잘 안 된다”며 “그땐 며칠만이라도 아르바이트 태타를 구해야 하는데 못 구하면 사실상 시험을 포기해야 한다.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최근 교회에서 단기선교를 가느라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박씨는 다시 아르바이트를 구해야 한다.

등록금 마련하느라 논문 준비 차일피일 미뤄져

역사 교사를 꿈꾸며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김진규(가명·26)씨는 서울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를 방학 때 가는 여행은 당연히 포기했고 흔히 말하는 스펙 관리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학점관리 등 최소한의 것만 하게 되더라고요. 등록금 마련이 안 되면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취준생’(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으로서 부담이 되네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돼 그나마 거주비 해결

공기업 입사를 준비한다는 이준호(가명·24)씨는 지난해 아버지가 오랜 지병으로 소천하고 어머니도 요양병원에서 암 투병을 하고 있다. 다행히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장학금을 받기 때문에 등록금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문제는 주거비와 생활비였다. 지난해 청년들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마련된 ‘LH청년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한 뒤부터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었다. 더 이상 학교 기숙사에 머물 수 없어 잠시 하숙했던 시절은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었다.

이씨는 “5평(17㎡)가량 집에서 하숙을 했는데 방음이 안 돼 위층

그들에 잠시 가리워도, 청년들이! 끝내 빛나라

다. 청년들은 월세(48%)와 보증금(26%) 학자금 대출이자(26%)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봤다.

지난 12일 이 교회에서 기독교청년 세 명을 만나 그들의 애환과 기도제목을 들어봤다.

월세 때문에 시험도 포기하고 늘 알바해야

4년제 대학에서 미디어를 공부하는 여대생 박수림(가명·21)씨는 신입생 때부터 학기뿐 아니라 방학 중에도 아르바이트를 해 왔다. 박씨는 “매달 월세와 생활비가 나가야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부모님이 중국에서 자영업을 한다는 박씨는 혼자 학교 인근에서 자취하고 있다. 거실과 방이 한 칸인 12평(40㎡)짜리 집에서 사는데 보증금 500만원에 월 65만 원씩 낸다. 대학생이 매달 내기 벅거운 금액이다. 그동안 사업하는 아버지가 매달 월세 일부를 지원해 줬는데 사업이 기울어 이마저 어렵다. 방음이 안 되고 닭장 같은 원룸으로 이사를 생각하니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린다고 한

있기에 주거비보다는 등록금 마련이 큰 부담이다. 매 학기 100만 원 장학금을 받지만 400만원의 등록금을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김씨는 “군 전구역 복학할 즈음 아버지가 실직하시고 형도 대학생이라 등록금이 같은 시기에 필요해 경제적 어려움이 심했다”면서 “최근엔 어머니가 여가 인대 수술을 받으라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했다”고 밝혔다.

김씨 역시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다. 생활비와 등록금 마련 때문이다. 안정적인 장기 아르바이트를 원했지만 조건이 맞지 않아 단기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다. 방학 때 마트 등에서 물류 알바를 했는데 이 같은 아르바이트도 구하기 쉽지 않다. 단기 아르바이트는 주말이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인데 주말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늘 시간에 쫓긴다는 김씨는 일하느라 논문과 임용시험 등 학업에 집중하기 힘들다고 했다.

“일과 학업을 병행하다 보니 논문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대학원 수료 후 2-3년 뒤에 졸업하는 선배들이 앞으로 제 모습이었지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친구들처

의 부부싸움 소리까지 들렸다”며 “그 좁은 방도 매달 42만원을 내야 해 힘들었다. 이제 주거비 걱정은 한시름 놓았는데 주변의 가난한 친구들이 등록금과 생활비, 주거비를 고민하는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교회는 이런 청년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을까. 장근식 학원복음화협의회 상임대표는 “교회가 청년의 삶을 진심으로 돌보기 위해선 먼저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대화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학사관 운영이나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청년을 지원할 수 있다. 교회가 청년문제에 관심을 갖는다면 청년들이 교회 공동체에 지체 의식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갑 청년사역연구소장도 “교회가 다음세대 문제에 구체적 행동으로 접근한다면 청년들이 교회뿐 아니라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건강한 일꾼으로 양육될 것”이라며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이웃에게 선을 행한 것처럼 청년의 회복을 위한 교회의 손길 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여호와의증인 수혈 거부 등 반사회적 교리

“피채 먹지 말라” 자의적 해석...수혈 못해 생명 위협

여호와의증인의 반사회적 교리는 국가체제 부정과 병역기피, 투표거부에 그치지 않는다. 그릇된 종교적 신념과 잘못된 교리는 신도들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까지 위협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수혈이다. 여호와의증인은 “피를 먹지 말라”는 레위기 말씀을 앞세워 수혈을 거부한다. 그러나 여기서 ‘피를 먹지 말라’는 뜻은 사람의 피를 마시지 말라는 뜻이지 수혈을 거부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이덕술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 협회 서울소장은 23일 “수혈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혈액을 보충하는 용도이지 먹는 게 아니다”라면서 “여호와의증인처럼 반사회적 종교집단은 성경의 전후문맥을 따지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구절만 떼어내 해석하는 오류를 범한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여호와의증인의 교리는 신도들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 2010년 서울 S병원에서 생후 50여일 된 영아가 수혈을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부모는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내세워 수혈을 거부했고 병원은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진료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까지 제출했다. 2011년에도 S병원은 여호와의증인 신도를 상대로 수혈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여호와의증인이 이처럼 수혈을 거부하는 것은 수혈을 받았을 경우 그들의 ‘부활’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혈을 한 신도는 출교처분까지 받는다. 그래서 신도들은 수혈거부증을 소지하며 병원에 입원하기 전 수혈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쓴다.

여호와의증인 관계자는 “신도들은 무수혈로 치료 받겠다는 의료지침서, 의료위임장을 늘 소지한다”면서 “만약 수혈을 해서 ‘피를 멀리하라’는 성서 원칙을 어겼다면 출교처분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술 때 꼭 수혈을 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검증된 무수혈 대체요법도 얼마든지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2010년과 2011년 병원이 제출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그것

고신, 현장 중심 선교 조직으로 재편

고신총회세계선교회 新 지역선교부 체제로

“현장 중심으로 선교부를 재편하는 데 2년이 걸렸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고신 총회세계선교회(KPM) 김중국 본부장은 23일 “지난달 말에야 재편된 지역선교부를 모두 둘러봤다”며 이 같이 말했다.

KPM은 지난해 11월 기존 27개 지역선교부를 12개로 조정했다. 아메리카부, 대양방인(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지역), 필리핀, 동북아, 대륙, 일본, 유라시아, 유럽지중해, 아프리카, 서남아, 베트남캄보디아, 국내 이주민 선교부 등이다. 규모가 작던 지역선교부는 과감히 해체했고 선교사들을 재배치했다. 지역선교부 당 선교사 20유닛(umit·가정) 이상 속해 있도록 했다.

이번 재편으로 국내 본부가 갖고 있던 행정 결정권의 많은 부분이 선교 현장으로 이양됐다. 지금까지는 예장고신 소속 498명 선교사의 각종 청원 대부분을 본부에서 해결했지만 앞으로 지역선교부 운영팀에서 담당한다. 운영팀은 지역선교

부 내 선교사들의 투표로 뽑힌 지역장, 연구코디, 사무행정코디, 재정코디로 구성됐다. 김 본부장은 이를 ‘분권화(decentralizing)’라고 표현했다. 현장 선교사들의 권한을 강화한 것이다.

현장 선교사들은 재편된 구조에 만족감을 표했다. 아프리카지역선교부 지역장 노복수 선교사는 “아프리카에서 23년을 사역하면서 본부의 현장 방문 기회가 부족해 항상 아쉬웠다. 바뀐 지역선교부 제도가 이를 보완해 줄 것 같다”며 “(지역장으로서) 아프리카 모든 회원들의 현장을 돌아볼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프리카지역선교부는 지난 4월 선교대회를 열고 새로운 지역선교부 체제로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장에 권한이 더 주어진 만큼 지역선교부 내 팀 사역은 더 유기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전통적 개념의 팀 사역이 선교사 거주지 중심이었다면 재편 이후 팀 사역은 지역선교부의 목표 중심이 될 것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세 안동시장이 한다.

이정우 목사(대표부회장)의 사회로 시작되는 특별기도회에서 김상정 목사(경주기독교연합회장)가 ‘북한구원과 탈북자와 지교회회를 위하여’, 임보순 안동기독교연합회회장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하여’, 김병준 의성기독교연합회장이 ‘경북기총과 경북의 복음화를 위하여’ 각각 기도한다.

또 계성하 영양기독교연합회장이 ‘한국교회 연합과 하나 됨을 위하여’, 문병식 문경기독교연합회장이 ‘대한민국교회의 복음을 방해하고 혼드는 이단세력이 몰라가도록’, 이상운 경산기독교연합회장이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방지를 위하여’, 이경호 경북도청 기독선교회 전 회장이 ‘전쟁 없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각각 간구한다.

경북기총 ‘8·15 나라사랑 구국기도회’

13일 안동서부교회서 김종원목사 특강, 소강석목사 설교

경북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정희)는 8월 13일 오전 10시 안동서부교회에서 ‘8·15 나라사랑 구국기도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과 위정자, 북한구원, 탈북자, 경북복음화, 교회 연합과 일치, 동성애 방지를 위해 기도한다.

구국기도회는 1부 찬양, 2부 특강, 3부 예배, 4부 특별기도회 순으로 진행된다. 찬양은 안동서부교회 찬양팀이 한다.

특강은 이관영 목사(경북성서화 운동본부장·동성애대체위원장)의 사회, 김대원 경북기총사무총장의 기도, 김종원 목사(경산중앙교회)

의 ‘우리의 선택’이란 제목으로 특강, 김승동 목사(구미상모교회)의 기도 순으로 진행된다.

예배는 이장희 목사(대표회장)의 사회, 찬송, 이동철 장로(경북장로총연합회 수석부회장)의 기도, 김봉환 목사(상임서기)의 성경봉독, 안동서부교회 찬양대의 찬양,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의 설교, 기도, 찬송, 이상길 장로(회계)의 헌금기도, 안동서부교회 그루티기증장단의 헌금특송, 김길동 목사(상임총무)의 광고 및 내빈소개, 우종휴 목사(전 회장)의 축도 순으로 이어진다.

인사는 이장희 목사가, 축사는

유지하고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으려면 대체복무요원 선발과 복무 강도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군부대 내 합숙과 2배 이상의 복무기간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병역거부자의 99.2%가 여호와의증인 출신이기 때문에 특정종교를 위한 특혜제라는 비판이 높다”면서 “따라서 종교간 갈등 및 특정종교에 대한 종교편향 시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허위로 증명서를 발급한 종교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내에서 합숙하며 지뢰제거 작업을 하거나 수개월 간 야외에서 공동생활하며 진행되는 유해발굴 사업은 여호와의증인도 찬성하

는 평화적 활동”이라며 “대체복무제를 이처럼 엄격히 운영한다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도 “다다수 병역이행자들은 대체복무제도가 사실상 가짜 양심을 앞세운 병역면제 혜택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조만간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면서 “특정종교인이 이 제도를 악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대체복무요원선발심사위원회에서 종교계 인사가 꼼꼼히 감시활동을 벌여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번 안은 조만간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 등을 통해 제출될 예정이다.

교토소 선교칼럼 (46)



이영희 목사
교토소 교목, TPPM대표

1. 기도

F동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조정강 사와 아래층으로 내려가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욕설이 난무하는 언쟁이 일어났다.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고 그런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다. 발을 동동거리는데 통제소에서 F동의 교도관을 불렀다. 그런데 그 사이에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모든 재소자들이 손을 잡고 큰 원을 만들어 주기도문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느낄 수 있었다.

기도 중간에 F동에서 교도관이 왔다. 기도가 끝나자 고요했다. 예배드려라 곧 준비가 된 것 같았다. 나는 교도관에게 예배 중 문제가 생기면 연락하겠다고 했다. 예배는 조용히 잘 끝났다. 다음날 욕하며 소리 질렀던 재소자를 찾아갔다. 나는 그의 행동에 대해 실망했으며 폭언과 폭력은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야기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의 말에 동의하고 미안하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 후에 손잡고 기도할 것을 제안했던 로이드를 찾아가서 감사의 뜻을 전하고 그 과정을 설교로 준비해달라고 부탁했다. 그 다음 주 예배 시간에 소리를 질렀던 남자는 싸웠던 사람과 그룹 모두에게 사과를 했고 로이드는 평화롭게 기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한 것에 대한 감동을 했다. 다음은 그가 전한 메시지다.

"기도의 힘"-로이드 핸더슨

2006년 7월 1일 예배드리기 위해 목사님과 초청강사 그리고 참석할 재소자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출입구 쪽으로 나와 복도 아래로 내려가면서 두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게 되었다. 예배 전에 그런 일은 처음이었다.

두 남자가 서로 욕설을 퍼붓고 풀는 물처럼 분노하기 시작했다. '사랑과 평안, 서로를 향한 친절함은 어디에 있는가' 내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다름은 계속되었고 엘리베이터가 기다리는 동안 주님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원을 만들게 하였다. 우리는 마태복음 6장 9-13절의 주기도문을 외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마귀가 그 중심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영혼을 파괴시키려 한다는 것을 알았으나 결코 마귀가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우리는 자리를 옮겨 예배를 드렸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고전 13:11). 잠깐 멈춰서 생각해보라. 인생은 너무 짧다. 다른 사람에게 반응하기 전에 한번 더 생각해본다면 어리석은 결과를 막을 수 있다. 이제 오직 한 가지를 증명해야 한다. 너의 선한 양심을 보여라. 이것이 주님이 당신을 보는 모습이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의 선물을 받았다.

2. 위대한 설교자 찰스 프레드릭

찰스의 설교는 내가 들어본 최고의 설교 중 하나이다. 하나님은 사역 초기부터 내게 리더를 양성하라고 명하셨고 나는 예배시간에 재소자들에게 간증이나 설교의 기회를 주었다. 찰스는 자원하여 설교를 준비했고 은혜 넘치는 설교를 했다. 나의 선교사 친구도 찰스의 설교를 듣더니 감명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잘 사용하라고 격려했다.

한 번은 룸메이트 앞에서 아무 생각 없이 저속한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날 밤 주님께서 찰스에게 말씀하셨다고 한다. "룸메이트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을 함부로 했던 것이 걸려서 망설이고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순종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 해줄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응답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룸메이트는 진심으로 기뻐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음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한다.

찰스가 중간 보안 단계에 있었을 때 항상 설교를 했는데 갑자기 그가 최고 보안을 요구하는 옆방으로 이동되었다. 나는 찰스가 그 주에 중간 보안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설교를 준비한 걸 알고 있었다. 그러나 중간 보안 단계에 있는 사람들과 최고 보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같이 예배를 보지 못한다는 규칙이 있었다. 그래서 그가 중간 보안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하게 하려고 그 교도소에서 특별허락을 받았고 그는 설교할 수 있었다.

찰스의 리더십은 놀라웠다. 그가 최고 보안을 요구하는 B동 3호실에 수감되기 전에는 아무도 예배에 참석할 사람이 없었다. 그는 그곳에 들어가자마자 성경공부를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그의 설교와 이야기는 책에 실리고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형기가 결정한 후 기간과 상관없이 자기의 삶의 목표는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얼마 후 그는 형무소로 이송되었다. 그는 자기의 영적인 성장을 도와주어서 감사하다는 편지를 몇몇에 써서 보내주었다. 후에 누군가 내게 물었다.

"목사님은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한 사람들이 형무소로 이동한 후에도 주님을 섬기며 계속해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님 섬기는 기쁨을 찾은 사람들은 계속 주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한 예가 찰스인 것이다. 2011년 웨이몬 보스턴은 찰스와의 만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멘토"-웨이몬의 간증

콜로라도 왈스버그 형무소로 이송되었을 때 신앙이 있는 재소자들만 거거할 수 있는 방에서 "최고의 성인들은 절대 숨지 않는다"라는 책에 간증을 쓴 찰스 프레드릭을 만났다. 그는 사람으로 나를 인도했고 나 같은 죄인에게도 희망이 있다고 말해주었다. 그 후 설교를 받았고 일년 내내 받았으로 성경 말씀을 공부했다.

웨이몬은 출감 후 사역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여러 번 설교시간에 말했다고 그의 설교는 많은 사람들의 변화를 도왔다. 하루는 강력한 성경님의 임재하심이 그의 설교시간에 느껴졌다. 아마도 그 날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찰스가 들었다면 정말 기뻐했을 것이다. 자신의 노력이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지 확인할 좋은 기회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기쁨을 맛있게 될 때 우리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다. 그 기쁨과 비교할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찰스와 웨이몬은 알게 된 것이다.

yonghui.mcdonald@gmail.com

선교 편지

아르헨티나

저희들의 사역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시고 기도도 힘주시는 모든 동역자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희 라티노 교회는 많은 부흥의 열매는 아직 보이지 않지만 성도 한분 한분을 소중하고 귀하게 섬기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의 소식과 기도제목을 전합니다.

저는 지난 5월 말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와 포르도바의 신학교에서 강의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예배소서의 교회론과 공감소통대화법, 두 과목을 강의했는데, 두 곳 모두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내년에도 또 와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7월 1일에 저희 교회 레슬리 자매가 은혜가운데 세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교회는 생명의 삶(Tiempo con Dios)의 사도행전 말씀 QT를 통해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고 있으며, 다음 주 7월 26일(목)부터 7월 28일(토), 3일간 "성령 충만과 죄의 굴레로부터의 자유로운 삶"이라는 주제로 부흥회를 하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모두에게 부어 주셨던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 요청이 또 있습니다. 한 달 전부터 Midian이라는 자매가 교회 나오고 있는데, 그 자매는 10년 전에 Bruja(사탄숭배자)인 이모로부터 닭의 피를 몸에 뿌리며 사탄숭배 의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심한 통증으로 고통스러워 하다가 한 달 전에 감상선 초기 암으로 수술도 받아 암이 없어졌다고 하는데도 계속 심한 통증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의 기도도 주님을 영접하고, 그녀 안에 거했던 악한 영은 나갔지만, 그녀의 의심으로 아직도 악한 영의 공격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워낙 신 악한영이 그녀와 그 가정을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기도도 많이 필요하십니다. 7살 된 아들과 남편 그리고, 그 자매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p>남가주든든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5:40(월-금)</p>	<p>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영양예배: 오후 2:00 젊은이 예배: 오후 1:20 영아전(영소: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9:20</p>	<p>대동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9:30 새벽 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 요: 새벽: 저녁: 7:30</p>	<p>디아스포라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속에 물려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신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수요예배: 오후 2:30</p>	<p>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박은성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청년) 새벽기도: 5:30(월-금), 6시(토)</p>	<p>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김문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p>	<p>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협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후 12:00(영어) 주일 학교: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오후 5:30 토요새벽예배: 오전 6:30 토요일학교: 오전 9:00</p>
<p>베델인교회 담임목사: 김한요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학교: 오후 2:00 성인영양예배: 오전 9:15, 11:30 영아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p>	<p>LA 복음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김효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아동부/청소년부: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성경공부(목요일) 오전 10:00 새벽예배: 오전 6:00</p>	<p>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p>	<p>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p>	<p>요셉선교회 담임목사: 정상호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p>	<p>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영어)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 기도회: 오전 5:45(월-금) 오전 6:00(토)</p>
<p>은혜안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령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00(토) 온라인예배: 365일 24시간 무료</p>	<p>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영어)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 기도: 오전 5:30(월-토) 성령강화: 오전 7:20(금)</p>	<p>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p>	<p>중은마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예배: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p>	<p>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토렌스, Irvine 교회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EM) 주일 5부예배: 오후 5:00(청년) 청년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국청년선교운동의 역사 (하)



노봉린 박사
(AGST-Pacific총장)

VII. 미국교회 선교운동의 감소와 도전

WORLD(2018년 2월3일) 기독교 잡지는 미국청년선교운동의 대표적인 무디성경학교(Moody Bible Institute)의 학생과 교수의 감소를 보고하면서 미국청년선교운동에 붉은 불이 켜져 있다고 지시하였다.

MBI는 무디가 1886년 시카고에 세운 성경대학으로 수천 명의 미국 선교사를 배출한 중요한 신학교로 미국 성경대학 운동의 대표적인 건물이 되는 성경대학이다. 지난 5년 동안(2012-2017) 학생의 수가 1,316명에서 967명으로 28% 줄었고 2017년에 112명 전임교수 가운데 34명을 해임시켰다.

세속주의, 물질만능주의, 인본주의 영향으로 미국교회 영성 약화 한국/한인교회 2030년 100만 자비량선교사 파송 선교운동 기대

GMM(Global Moody Ministries)도 직원의 10%를 해임하였다. 현금도 1년(2015-2016)에 900만불이 줄었고 2016-1017년에는 500만불이 줄었다. 이 보고는 분명히 복음주의교회 선교운동이 나날이 감소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에큐메니칼(NCC)에 속한 미국의 대 교단(장로교, 감리교, 루터교, 성공회 등)의 선교운동은 종교 다원주의, 혼합주의, 자유주의 선교신학으로 말미암아 선교사의 감소는 1965년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크리스챤티티튜에이 잡지(1989년5월12일)에 의하면 25년간(1965-1989) NCC교단에 속한 교단 선교사의 수가 4,059명(1965)에서 1,246명(1987)으로 감소되었다. 그 이유는 NCC교단에 속한 교인수가 18%에서 43%로 감소했기 때문에 해외선교 활동도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미국 남침례교단은 1630만명 교인을 갖고 있는 미국의 최대복음주의 교단이다. 지난 10년간 교인감소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되었다(Honolulu Star-Advertiser Newspaper, 2014년 5월31일). 미남침례교단은 2003년

1630만 교인이 있었는데 2016년 1550만 명으로 800,000명이 감소되었다. 선교사의 수도 5,600명(2013)에서 3,700명(2016)으로 감소하였다.

나날이 늘어가는 미국의 세속주의, 물질만능주의, 인본주의 사회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미국교회도 이에 영향을 받아 영성이 약화되면서 차세대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며 교회청년들이 선교에 대한 비전을 상실하게 되어가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미주크리스천신문(2018년 5월 5일자)에 “미국교인 51% ‘지상대 명령’ 모른다!; 바나리서치, 미국교회 성경 문맹률 심각성 증거하는 설문결과 발표”라는 기사가 실렸다. 이것은 확실히 과반수의 미

국기독교청년들이 선교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것은 장래의 미국교회의 심각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다.

결론

교회부흥과 성장은 선교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성경적 원리를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한다. 이 원리는 성경적이며 교회역사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아직도 미국교회에서 역사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미국 청년선교사역은 감소하는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아직도 한국과 북미의 한국교회는 살아 있고 선교의 비전을 갖고 28,000명의 선교사를 170개국에 파송했으며 앞으로 2030년까지 100만명의 자비량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교회 선교운동이 북미교회의 청년들에게 선교비전을 접어넣어줄 수 있는 성령의 운동으로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기도한다.

rohonolulu@gmail.com

선교 보고 | 일본 중기선교 (상)

오경게데스까? 와파시와 켄기~!
설레어 부푼 마음을 안고도 과연 할 일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갈까 싶었는데 어느새 반이나 지나가서 이제 반이 남았네요. 매일 교회와 성도님들을 생각하고 위해 기도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무렵, 예

많은 일들을 혼자 감당하면서도 즐겁게 또한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며 앞으로 저 또한 어떻게 사역에 임해야 할지 마음에 새기는 은혜로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시간 외에 자유시간이 주어질 때에는 길거리로 전도를 나갑니다. 이곳에 있는 한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가능한대로

을 잘하고 교회를 다녔어도 일본에 오면 교회를 나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본다거나 하니 사회적 분위기가 얼마나 영적으로 단단하고 교회들이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니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우상숭배가 만연한 일본에서 자녀를 믿음을 갖도록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고충도 듣게 되었습니다.

많은 바라보고 그분 한분만으로 만족하는 마음을 다시 잡으며 처음 일본 선교에 헌신했을 때 마음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이야기 등 어려웠던 경험들을 솔직히 나누어주셔서 외로움과도 싸우며 홀로 어려운 사역을 이어가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나라 국립여대 학생들과 도시락 전도 사역중에 한 컷!

수전도단 화요모임에서 일본선교사님의 설교를 통해 일본선교에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미국으로 이민 오게 되면서 일본과 떨어진 만큼 때로는 선교의 꿈도 멀어져 가는 것같이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게 일본을 향한 마음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확인하게 해주셨고 기대와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네 개의 큰 섬으로 구분하는데 본섬인 혼슈의 서쪽, 간사이 지역에서도 저는 교도, 나라, 니시노미야 세 곳에 위치한 교회에 일주일씩 지내면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돕게 되었습니다.

교인이 50여명 남짓 되는 교도 미도리교회는 이곳에서는 대형교회로 여겨집니다. 교인이 더 적어서 직분자도 한명 없는 다른 교회에서는 모든 일이 선교사님의 몫입니다. 교회건물 수리에서부터 주일 식사준비, 주중에 대학 교에 도시락을 싸가서 일본인들과 교제하며 전도하는 일, 주일에 찬양인도와 서빙서비스 운행, 물론 예배인도에 설교까지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역이 힘겨운 가운데 저의 작은 도움이 그리고 같은 비전을 품고 잠깐이나마 함께 동역하는 것이 선교사님들께 힘과 위트가 된다고 도리어 감사해하셔서 귀한 사역에 쓰임 받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알려주기 위해서 틀이 나는 대로 전도하고 싶어서 사역리틀 내용을 오한 일본어 전도지를 개인적으로 만들어 왔거든요. 장마기간이라 다니기가 어렵겠다고 몇몇 교인분들이 걱정해주었으나 비도 거의 오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계속 선전하고 맑은 날씨의 연속이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지요!

이름만으로도 능력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 전도지 통해 그들에게 들려지지만 해도 구원하시는 분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고 믿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비록 열 명에게 주면 서너 명 정도만이 받아가지만 거절당하는 것이 두렵거나 위축되어 전하지 않는다면 누군가는 일생에 단 한번도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하게 될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한 마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일본은 영적으로 침체 되어있습니다. 과거 한국인 이민자들이 일본 사회에서 받은 극심한 차별은 2002 한일월드컵과 배용준 온사마 덕에 최근에 들어서야 많이 나아졌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민 역사에서 재일교포들은 한국 고유의 문화를 유지하거나 한인 커뮤니티를 형성하기보다 일본인들 속에 들어가 지극히 개인적으로 일본인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는 신앙생활

을 잘하고 교회를 다녔어도 일본에 오면 교회를 나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본다거나 하니 사회적 분위기가 얼마나 영적으로 단단하고 교회들이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니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우상숭배가 만연한 일본에서 자녀를 믿음을 갖도록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고충도 듣게 되었습니다.

어린 아이가 엄마에게,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다른 집처럼 집안에 불단을 만들어 모셔도 되는지, 불단을 만들어 모시지 않으면 정말로 서운하지 않을지를 물어봐주고 합니다. 모두가 당연하게 신을 만들고 섬기는 문화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우상숭배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되어진다는 것이 참 무섭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선교를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확신하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하시는 세 분의 선교사님들



교도 미도리교회 예전도회원들과 노방전도를 하고 있다

은 모두 미혼의 여성분들입니다. 연약한 몸으로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습니다. 교단에서 보내는 지역에 가서 개척하고 또 다른 곳으로 보내지면 그곳에서 개척하며, 교회건물을 건축하며 세분 모두 20년이 넘는 긴 시간을 사역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를 심고 전도하고 전도하다가 불참해 가기도 하면서 사역에 온 힘과 마음을 쏟아 아도 그만큼의 열매나 부흥이 없는 것이 실망스럽게 느껴질 때에는 마음이 흔들려서 초코파이만 나눠줘도 잔뜩 모이는 사역지로 가고 싶거나 “나에게 문제가 있나?” 라고 자책이 되어 우울해질 때도 있지만 또 다시 하나님

의 제일 우선하는 기도제목은 가족구원입니다. 본인 외에 가족들은 보통 불교신자입니다. 열심히 부모님이라면 핍박도 적잖게 받는 다니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 신앙을 지키고 성장해나가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지, 위해서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을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군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취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엡 3:7-9).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끝까지 담대히 복음 전하는 일을 잘 감당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퀵즈장로교회
청년선교부 김유미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p>금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www.kumr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p>	<p>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향희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p>	<p>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병우 Tel: 39-06-827-3585, 39-348-339-1726</p>	<p>새이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 (031)896-6077</p>	<p>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Tel: (02)525-7767, HP: (017)237-8258</p>	<p>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www.seongsil.or.kr Tel: (02)2-950-9998, Fax: 3927-1008</p>	<p>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p>
<p>수정교회 담임목사: 이성준 Tel: (82)32-588-0191, Fax: (82)32-562-2738</p>	<p>승송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Tel: (02)732-2341~3, 팩스: (02)389-2235</p>	<p>시온소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Tel: (031)253-1004, 팩스: (031)253-1010</p>	<p>신길교회 담임목사: 이기용 Tel: (82)2-842-1968, 팩스: (011)82-2-842-1968</p>	<p>신천교회 담임목사: 박영석 Tel: (02)418-0481, 팩스: (02)422-0751</p>	<p>신촌교회 담임목사: 박노훈 Tel: (82)2-3142-6080, Fax: (82)2-336-4188</p>	<p>안암 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준호 Tel: (02)926-926-4508, Fax: 2648-4662</p>
<p>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p>	<p>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Tel: (82)2-888-4813, 331-284-7204</p>	<p>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신일권 Tel: (02)842-6881, 팩스: (02)842-6882</p>	<p>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중증 Tel: (82)2-527-527-1009, 팩스: (043)275-8114</p>	<p>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p>	<p>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p>	<p>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준호 Tel: (82)2-793-7740, Fax: 302-67 (140-031)</p>

기독교경영 전략

기독교경영 전략(Christian Business Strategy) 강의 (20)



제임스구 교수 (그레이스미션대학교 행정처장)

성경적 마케팅 전략의 성경적 원리

- 1.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2. 법에 순응하고, 고용자와 직업에 충성하는 것
3. 남을 사랑하는 것
4. 흠치지 말라와 정직하라
5. 불공평하게 하지 말 것
6. 다른 사람과 화평한 것
7. 다른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것

무슨 일든 주께 하듯 충성하며 법에 순응 정직, 공평, 화평하며 타인의 필요를 충족

수많은 성경 말씀들은 우리가 세상의 법과 권세를 가지고 조직과 사람에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로마서 13장 1-7절을 통해서 마케팅 전략의 원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주께 하듯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22장 16절, 사도행전 10장 34절, 로마서 2장 11절 등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매일가정예배

전화형 목사(캄보디아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주는 영이시다(고후3:15-18)찬175장

새 언약의 사도인 바울은 완성된 구속 위에서 서서 모든 것을 관찰합니다. 그중 하나가 주는 영이시라는 주장입니다. 첫째, 여기 주란 부활 하심으로 구속의 완성을 위해 일하시는 분임을 가리킵니다(17). 승천하신 주님이 우리 속에서 주권자로서 일하심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모세의 영광을 능가한 자리에 지금 서 있습니다. 둘째, 그 주님이 영(성령)이라고 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성령이

화 사도의 확신(고후4:1-2)찬182장

언약에 대한 이해가 분명치 않은 때 사도는 새언약의 직분의 탁월함을 증거합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첫째, 그는 난관에서도 진리를 증거했습니다(1-2). 혼란의 때에 진리를 타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거짓된 양심을 벗어버리고 진리를 나타내려고 힘썼습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와 그가 이루신 새 언약의 복을 증거하는 사명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질 확신입니다. 둘째, 그는 말씀을 혼잡시키지 않

수 복음의 광채(고후4:3-4)찬27장

복음의 광채가 어둠을 잘 안 사도는 무엇을 깨달았는가? 첫째, 복음은 불신앙에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사탄이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분명히 깨달으려는 것이 우리가 행하는 싸움입니다. 둘째, 복음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증거하는 직접적 수단이 복음이고 그 복은자체가 세상의 빛

목 사도의 전도(고후4:5-6)찬484장

이 놀라운 구원을 안 교회가 마땅히 가야만 하는 길을 잘 알고 있는 사도는 모든 일을 전도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첫째, 자기를 전하는 것을 철저히 경계했습니다(5). 인본주의와 자기 자랑의 발동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아부인의 길을 항상 걸어야합니다. 둘째, 예수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

금 보배의식(고후4:7-12)찬469장

새 언약의 직분의 탁월함을 안 사도는 2가지 의식으로 찬양했습니다. 첫째, 자신은 질그릇 같다는 의식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부어지는 은혜입니다. 베드로와 이사야는 그 빛 아래서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알아 평생 겸손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눅5:8, 사6:5 참조). 둘째, 직분의 보배의식을 가졌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보배

토 같은 믿음(고후4:13-15)찬465장

바울은 고린도교회로 하여금 동질의 믿음을 추구하게 했습니다. 첫째, 교회는 한 주를 믿고 한 성령을 받았기에 한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13). 이것은 성령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다양한 은사들을 하나로 연합시키는 통일성을 가집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하나님의 행상을 중심으로 연합된 모임이 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많은 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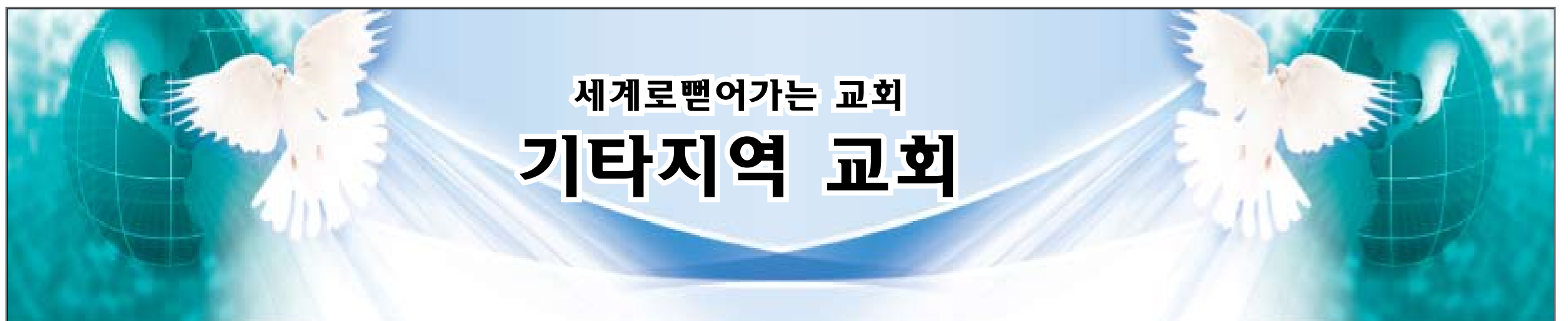


Table with 6 columns and 3 rows of church listings. Each cell contains church name, pastor name, address, and contact info. Includes churches like Galbraith, Wungo, Bexco, Benel, Boston, Salt, etc.

인/터/뷰

장애인 신학세미나 참석차 남가주 방문

이재서 목사, 장승익 목사

“삶 속에서 교회공동체가 반드시 해야 할 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공동체적 시각으로 장애인 신학을 이야기함으로써 우리시대에 주신 교회의 소명에 대한 신학적 반성의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장애인 신학세미나가 7월 25일과 26일 미주복음방송 공개홀에서 열렸다. 이를 위해 세계밀알연합회 총재 이재서 목사와 세계밀알연합 이사이자 한국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인 장승익 목사, 남가주밀알선교단 단장인 이종희 목사와 만남을 가졌다.

이재서 목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됐으면 합니다. 보통 장애인에 대해서 동정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제의 대상으로 여기고 다가가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장애인교회는 소홀히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생명이요 영혼인데도 말입니다.”

지난 1995년 세계밀알연합회가 출범하고 98년에 첫 번째 장애인신학세미나가 시작이 된 후 2년마다 열여왔다. 지난 6월 10회 세미나가 열렸으며 미주에서는 4차례 열린바 있다.

신학세미나로 열리게 된 것에 대해 이재서 목사는 “각 지역적으로 사역적인 차이점은 존재하지만 신학적인 차이는 없으며 장애인신학이 원론적인 것에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라고 언급했다.

“삼위일체 신학은 세계 어느 곳에 가

들이 작성한 주제논문이 ‘장애인 사역의 신학적 정의’라는 제목으로 논문집으로 발간이 됐다. 총 11명이 집필 작업을 했다

이종희 목사는 “밀알선교단 사역을 통해 현장에서 느껴지는 것은 과거에 비해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아무래도 장애인들이 많이 보이니까 관심이 높아지는 거 같다”며 “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사역자가 부족해서 장애인사역을 하지 못하기도 하고,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서목사(좌), 장승익목사(우)

장애인은 단순히 동정의 대상이나 구제의 대상이 아니라 성경적 신학적 영역에서 장애인 대하기 통해 공감대 형성

라도 변화가 없듯이 장애인신학 역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토대로 적립이 된 것이기에 동일합니다. 성경에서 장애인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분량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각 신학적 영역에서 장애인들을 어떻게 다루게 되는지를 나누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이상명 박사(미주장신대 총장)가 바울공동체 사상과 장애인 신학 △소형근 박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가 ‘구약에 나타난 장애인과 함께하는 동행의 신학’ △장승익 박사(함께하는교회 예수마을 담임, 세계밀알연합 이사)가 ‘장애인교와 비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성경적 대안모색’ △이경식 박사(클레어몬트 신학교 교수)가 ‘장애인을 위한 목회상담’, 그리고 △강원호 박사(뉴저지밀알선교단 단장)가 ‘하나님 나라 복음에 기초한 장애인 선교의 통합적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이재서 목사는 “이번 세미나 강사는 세계밀알연합회 본부에서 선정된 최고파적으로 우수한 신학자들이 참여했다”며 “그

데 이번 세미나는 그들 중 6명이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장승익 목사는 한국과 유럽(독일)의 차이는 매우 크다고 언급했다.

“저는 독일에서 20여 년간 공부를 했고 사역도 해왔습니다. 독일은 장애인 한 분 한 분에 대한 신학적, 선교적 인식이 정확합니다. 사역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반면 한국은 관심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여겨집니다. 교회는 장애인부서를 만들어서 뭔가를 해보려 하지만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의 벽이 워낙에 높아서 활성화되기 어려웠어요”

장 목사는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알려졌지만 강서구에 장애인학교 설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집값 떨어진다며 주민들이 극렬하게 반대했던 적이 있고 장애인들을 보는 것 자체를 싫어하기도 한다”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에서 장애인부서는 매우 열악하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학교에서 강의시간에 그리고 여러 세미나를 통해 계몽해 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이재서 목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장애인과 관련된 기록들을 보면 하나님은 장애인을 사랑하신다는 것이며 하나님은 어려움 당한 장애인들을 일반교회에 그들을 돕고 사랑하라고 간곡하게 부탁하신 것이다.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것들을 순종하여 나아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승익 이사는 “목회자들과 사역자들, 그리고 일반성도 모두가 장애인 신학을 반드시 알아야 하고 관심을 갖고 행동으로 삶속에서 실행해야 하는 영역임을 알게 됐으면 한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사회적 약자들과 장애인들을 정말 사랑하셨다. 이 부분 깊이 인식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종희 목사는 “세미나 통해 사역이 풍성해졌으면 한다. 장애인 사역은 옵션이 아닌 정말 삶속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해야 할 사역임을 깨달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박준호 기자)

책 소개

“작은 자의 소리 인생”

저자 김재원 목사

사랑은 한 인생을 대변하고 한 사람의 인격과 성품의 결정체요 성화의 완성본이요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작품 중 작품이다 인생은 사랑이어라... (“인생은 사랑이어라” 중에서)

출세, 야망의 늪에서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위해 저자는 “인생을 긍정적이고 주관적인 시각으로



삶에 대한 소중함과 의미 나타내

주하나리유학교 대표로 섬기고 있는 김재원 목사의 시집 ‘작은 자의 소리 인생’이 출간됐다.

본서는 삶에 대한 소중함과 의미를 저자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세상을 향한 출세를 위한 도전이 아닌 인생의 뜻있는 일을 쫓으며 느끼고 체험한 순간순간을 기록했다.

인생에 대한 좌절과 낙심, 고민과 방황, 자존감 상실과 인생현오, 부와 명예,

바라보자”며 “내 인생을 사랑할 가치와 의무가 나에게 있고 나 자신의 아름다움을 찾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만의 길을 정진하면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이 아닌가?”라고 외치고 있다.

본 시집에는 ‘나의 인생’, ‘난 행복하다’, ‘너 자신을 알라’, ‘당당한 삶’, ‘도약’, ‘도전’, ‘동행’, 등을 비롯해 60여 편의 진솔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이성자 기자)

“주님께서는 내일의 소망을 주십니다!”

(3면에서 계속)

어쨌든 나도 그렇다고 대답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관적이고 내일을 주관하신다고 믿는다면, 왜 내 삶은 항상 그런 믿음을 드러내지는 못하는가?

의학적으로 우울증을 비롯한 여러 질병을 진단받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나는 대체로 내가 걱정하는 정도가 내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지표라고 믿는다. 하나님이 이미 내 인생길을 계획하신 대로 내가 살아간다면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늘 궁금하다. 당신이 당신 자신에 대해 똑같이 궁금해 할 것이다.

걱정이 늘어나고 믿음이 곤두박질치기 시작할 때면 나는 돌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읽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곤 한다. 그 말씀이 하나님을 묘사하는 내용이든, 엄청난 역경에도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게 해주는 이야기이든, 그분의 신실하심에 대한 말씀을 읽고 나면 위안이 된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읽는 것과 함께, 매일 기도 시간을 꾸준히 이어가야 한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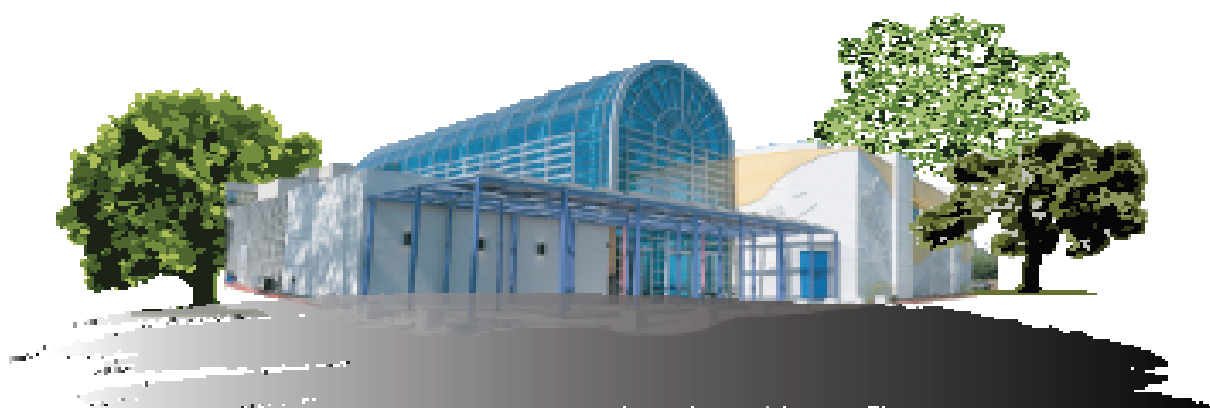
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서 도대체 어떻게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단 말인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게 신실하셨던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따로 떼어놓아야 한다.

그분은 암울한 시간에도 꾸준히 나를 지켜보고 계셨다. 걱정을 줄이고 믿음을 키우면,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고 내일의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신 것을 기억할 수 있다. 하지만 걱정이 문제인 까닭은 단순히 내 믿음을 약하게 만들기 때문만은 아니다. 걱정은 내가 다른 사람들의 삶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걱정을 줄이고 믿음을 키우면 나 자신에게서 시선을 돌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 오늘,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다.



교차문화학 철학박사 PhD in ICS 인가 및 학생모집

그레이스미션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ATS 정회원인 그레이스미션대학교는 북미주 한인 신학교 최초로 TRACS 인가 아래 교차문화학 철학박사(PhD in Intercultural Studies) 과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선교 영역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를 양성하게 될 본 과정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 선교가 통행된 미국 대학교 인준기관



특전: 선교사정학급 / 목회사정학급 / 1-20 일급 / 교수요원 양성 / 탁월한 교수진

박사원 학위과정

교차문화학 철학박사 (PhD in Intercultural Studies) 선교학 박사 (Doctor of Missiology)

가을학기 1차 서류지원 마감 8월 30일(금)

박사원 연락처 714-365-1123(남양 총학생회장) dmiles@gm.edu/phd@gm.edu 홈페이지 www.gm.edu

GMU 학위과정

BA 학사 MAICS 선교문화학사 MACE 교육학사 MDIV 신학석사



그레이스미션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18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 | Fax: 714.525.0089 gm@gm.edu | www.gm.edu